

**MONT
BLANC**



**Montblanc
Heritage Spirit Moonphase
and Hugh Jackman**

몽블랑 헤리티지 스피릿
문페이즈와 휴 잭맨

Crafted for New Heights

The new Montblanc Heritage Spirit Moonphase features the moonphase complication in the spirit of traditional fine watchmaking. Housed in a 39 mm 18 K red gold case, the self-winding Calibre MB 29.14 indicates the moonphase in a crescent-shaped aperture, making this refined timepiece a true lifetime companion. Visit Montblanc.com



Style

조선일보

JULY 2015
vol.127



cartier.co.kr

Cartier

OMEGA



Speedmaster
GEORGE CLOONEY'S CHOICE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AK플라자 분당점 031 708 5520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현대 부산점 051 667 0417

Ω
OMEGA



12

36



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카르띠에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인 로열 컬렉션 중 '빅'로 압둘라 네 크리시다. 30.21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페어링 다이아몬드가 발산하는 눈부신 광채와 순수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다이아몬드는 네 크리시스 팬던트에서 떼어내 링 위에 세팅할 수도 있다. 문의 1566-7277



16



08

- 12 **파리의 디자이너 듀오 GILLES & BOISSIER** 요즘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러브콜을 받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듀오가 있다. 20년에 걸친 파트너십을 다져온 파트리크 기(Patrick Gilles)와 도로시 부아지에(Dorothee Boissier)다.
- 16 **URBAN EDGE** 클린하고 차분한 이미지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보다 성숙해진 눈빛으로 배우 한자혜가 카메라 앞에 섰다.
- 24 **KITCHEN IN FANTASY** 1845년 태어난 이태 주부들의 꿈으로 자리매김해온 독일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 휘슬러(Fissler).
- 25 **HIGH-TECH ALCHEMY** 지난 6월 10일, 중국 베이징 다산쯔 예술촌은 전 세계 각국 기자들의 열띤 취재 열기로 들썩였다. 예배우 탕웨이 가 스위스 워치 브랜드 '라도(Rado)'의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론칭 행사에 참석한 것.
- 26 **PRECIOUS CLASSICS** 워치부터 만년필, 레디 아이젠까지 럭셔리 브랜드의 장수를 아름답게 펼쳐낸 몽블랑(Montblanc). 클래식함과 실용성, 브랜드의 고유한 가치까지 우아하게 드러내는, 몽블랑을 대표하는 컬렉션을 소개한다.
- 27 **JET-SET CHIC** 취향과 새로운,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을 수 있는 맞춤 슈즈, 패라카모 드라이빙 슈즈 MTO 서브스를 소개한다.
- 28 **THE GREAT EXPECTATION** 패션 가장 칼라가겔트와 로마의 위대한 브랜드 팬디의 협업이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그 어떤 곳보다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업계에서 반세기째 걸쳐 함께 지속적으로 컬렉션을 선보인 것은 패션 신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시간이다.
- 30 **IMMORTAL MASTERPIECE** 1백76년의 역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아주 작은 부품에까지 파편을 새겨 넣는 브랜드, 연 5만 개가 넘는 제품을 모두 핸드메이드로 만들 수 있는 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자존심, 퍼펙트함의 진면모를 확인했다.
- 31 **SCENT OF VITALITY** 아주 즐겁고 생기 넘치며,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행운의 기쁨이 찾아올 것만 같은 '샤넬 샹스'는 마드모아젤 샤넬이 종종 말한 찬스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독립적이고 개성 있는 여성을 위한 향수다.
- 32 **EDITOR'S PICK** 여름철 스카케어의 기본은 그 무엇보다 수분 관리다.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의 촉촉한 피부 만들기는 여름에도 계속된다.
- 33 **CHANGE DESTINY**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대륙의 여성 탭웨어. 그루가 SK-II 한국의 새로운 뮤즈로 우리 앞에 섰다.
- 34 **NATURE AT HEART** 울여름 뜨거운 태양에 자극받은 피부를 지켜줄 멜바타의 스카케어에 주목해보자.
- 35 **SUMMER BASE** 뷰티 전문가에게 검증받은 나스의 베이스 메이크업 아이템을 소개한다.
- 36 **BIENNALE DI VENEZIA 2015** 이번 휴가는 베니스로 떠나는 것이 어떨까?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가 그 화려한 막을 올렸기 때문. 우리나라 작가들도 대거 참여하는데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작품으로 한국관을 채웠으며, 국제전에는 김이영, 남화연, 임흥순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11월 22일까지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요 전시와 베니스 여행 노하우.

Style 조선일보

Issue.127 July 2015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김지혜 jhy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사빛 그래픽스
 인쇄 | 타리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갤러리아 East 롯데 에비뉴웨 웰드타워우관 신세계 강남점 신세계 센텀시티 현대 북점 현대 무역센터점

Dior

CAPTURE TOTALE

당신이 꿈꾸던 피부.
원하는 순간 아름다워지기를.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기를.



어떤 나이에도, 어떤 피부타입에도, 어떤 피부톤에도 디올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 캡처 토탈 드림스킨



DREAMSKIN

캡처 토탈 드림스킨

에이지 - 디파이닝 스킨케어, 모든 여성이 꿈꾸던 당신의 마지막 스킨 크리에이터
안티에이징 - 화사한 피부 - 균일한 피부결

타고난 듯 아름다운 피부로 돌려주는 디올의 토탈 뷰티 케어 - 디올 가든에서 추출한 플로럴 성분은 함유한 캡처 토탈 드림스킨은 한 번의 터치로 율터컬 활성성분이 화사하고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를 되찾아줍니다.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로 전달되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파워로 그 아름다움은 더 탄탄해지고 더 매끄럽게 자리 잡습니다.

Living LET IT RAIN

우산의 잔치는 장마철 쏟아지는 비속에서 펼쳐질 때 편가를 낸다. 주름 없이 팽팽하게 아름다운 곡선의 자태를 뽐내는가 하면, 빗방울이 우산과 맞닿았을 때 나는 경쾌한 소리, 가에 한 손에 부드럽게 감기는 손잡이까지. 다가오는 장마철을 기다리게 만드는 멋스러운 우산 컬렉션에 주목해보자.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뱀무 핸들과 시원해 보이는 스트라이프 패턴이 경쾌한 우산. 고객이 직접 원하는 원단과 핸들을 선택해 주문할 수 있다. 62,900원 **카멜레온 앙브엘라 by 에드워드 맥스**. 자질한 체크 패턴과 큰 사이즈로 큰바에도 고딕잡는 우산 1백만원대 **에르메스**. 화이트 도트 패턴과 신뜻한 블루 컬러가 특징인 우산 65만원 **말리아 프란체스코 by 1430아니올리**. 카리코일 패턴과 단풍나무로 재탄생 손잡이가 특징인 우산 1백10만원대 **루이 비통**. 사랑스러운 인출 모양 프린트와 넓은 범위를 커버해주는 버드케이지 레드 림 캐논피 우산 17만5천원 **루루 기네스 by 일본**. 영국 왕실에서 사용한다고 알려진 폭스 앙브엘라의 우산. 영국 신사 문화가 예결맞은 체크 패턴과 재치 있는 오리 모티브 손잡이가 매력적이다. 39만원 **폭스 앙브엘라 by 린스미어**. 에디터 김지혜



Fashion SUMMER FLATS

여름에는 플랫 샌들만큼 사랑받고 관한 신발도 없다. 게다가 화려한 주얼 장식과 비비드한 컬러, 우아한 디자인을 다한 샌들이라면 일상에서도, 해변에서도 스타일링 걱정은 끝!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화이트 & 베이지 컬러의 매카지 우아하고 세련된 스트랩 샌들 1백19만원 **에르메스**. 메달릭한 살버 보드에 화이트 고딕 장식이 멋스러운 샌들 41만3천원 **피에로 이코르디**. 페이퍼트 송이자극을 꽃잎 형상으로 카팅해 장식한 스프링 타입 샌들 1백만원대 **루이 비통**. 말바리의 레오파드 패턴이 눈에 띄는 컬러 스트랩 샌들 97만원 **크리스찬 루부앵**. 금속 꽃 장식이 돋보이는 화이트 샌들 1백35만원 **올샤넬앙카바나**. 원형 버클이 포인트인 미니멀한 디자인의 T 스트랩 샌들 60만원대 **토즈**. 브랜드를 상징하는 알파벳 'T'를 럭셔리한 메탈 바 장식으로 표현한 스페이드 샌들 1백30만원 **폴 포드**.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아트 컬래버레이션, 가치와 개성을 살리는 상생의 미학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아트 컬래버레이션 사랑은 갈수록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브랜드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과 손잡고 펼치는 창조적 협업,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어려운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관공하는 이들과의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친근한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현대사동차는 기술과 예술의 접점을 잘 살리는 미디어 아트 그룹 에브리웨어(EVERYWARE)와 손잡고 자동차 내부를 여행한다는 콘셉트의 전시 <앙상블(Ensemble)>을 선보였는데, 제네시스 쿠파의 인맥을 휘감은 각종 부품과 배관, 엔진 등 기계 미학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특히 고프로 같은 액션캠을 실은 임종맞은 크기의 모형차들이 실시간으로 찍어 전송하는 영상을 벽면의 미디어 월에서 보는 재미가 있다. 이 전시는 현대차 브랜드 체험관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열린다. 독일 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 휘슬러는 17인의 개성 있는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전시회 <키친 인 판타지(Kitchen in Fantasy)>를 개최했다. 서울 신사동 호림아트센터 JNB갤러리에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이 전 사회에서는 휘슬러 탄생 1백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아트 컬래버레이션 작품을 선보였는데, 사진작가 강영호, 가구 디자이너 국중훈, 캘리그래피 공방가 등 다양한 작가들이 일상의 주황에서 자미디의 방상으로 창의성을 풀어냈다. 이 중 공간과 영상을 조형하는 시각예술가 박기가 선보인 '우리는 매일 미추한다' 같은 작품은 카메라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관객의 얼굴과 중요 관점을 인식하는 미디어 아트다. 수증기를 모티브로 작업한 영상이나 주방에서 나는 각종 소리를 바탕으로 리듬을 빚어낸 작품 등 관객의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 시도가 흥미로웠다. 패션 브랜드 쿠론도 지난 5월 가루아트센터에서 <이성현 나리의 앨리스>에서 영감을 받아 누구라도 앨리스가 될 수 있다는 어른들의 판타지를 구현한 아트 컬래버레이션 전시 <앨리스, 윈드랜드>를 개최했다. 사진작가 비비안 사센, 미디어 아티스트 가트렉 등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했는데,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동해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가방에 부착된 로고를 통해 각기 다른 색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백' 같은 인터랙티브 작품이 눈에 띄었다. **에디터 고성연**



(카친인 판타지)

(앙상블)



Exhibition DDP에서 펼쳐지는 <디올 정신>展과 <앤디 워홀 라이브>展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주목할 만한 2개의 전시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20세기 팝아트의 상징 앤디 워홀의 작품 세계를 국내 최대 규모로 접할 수 있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은 오는 9월 27일까지 긴 대장정을 펼친다(www.art-mon.co.kr). 워홀의 시대별 다양한 작품과 삶의 흔적을 담아낸 전시는, 그의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 사진부터 특유의 자화상 사진, 상업 디자이너로 활동한 뉴욕 시절의 드로잉, 캠페인 수피 사진 등 팝 아티스트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 1960~70년대 실크스크린 작품, 메릴린 먼로, 마우피저, 마이클 잭슨, 무하미드 알리 등 유명인들의 초상화 40여 점, 일생의 기록물인 1백300여 점의 타임캡슐에 이르기까지 총 4백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워홀의 대표작 '메릴린 먼로 초상화'를 비롯해 대형 자화상, 삶의 덧없음을 표현한 '해골' 사진, 보타첼리 비너스의 탄생을 3개의 눈이 있는 형상으로 재해석한 미디어 작품 등 볼거리가 풍부하며 국내에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도 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만5천원. 우대환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의 영감 촉민한 창작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에르메스 디올-디올 정신>도 굵이 패션-메이카가 아-디올로 흥미로운 전시다. 복사시에 길이 남을 '뉴룩의 청초'를 불러주는 디올과 그의 작품에 영감을 불어넣은 예술·문화·역사적 요소를 한눈에 접할 수 있는 전시로 드레스, 향수, 액세서리, 사진 등 풍부한 요소가 어우러져 있다. 전시 공간 자체도 디올이 계승해온 창의적 유산의 존재감을 실려줄 만큼 매력적이다. 곳 곳곳에서도, 이불, 박산기 등 대표작적인 한국 아티스트 62인의 예술품도 자리해 이목을 끄는 발걸음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DDP에서는 오는 8월 29일까지 열린다. 입장료는 무료다. **에디터 고성연**

Beauty FOR FRAGRANT HAIR

여름이면 더욱 신경 쓰이는 두피 냄새부터 모발에 한번 배면 쉽게 빠지지 않는 불쾌한 냄새를 잡아줄 제품이 여기 있다. 향수만큼이나 은은한 향으로 머릿결을 부드럽게 감싸줄 헤어 퍼퓸이 그것.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모던한 패키지가 디자인과 플로럴 향이 특징인 **비비드 헤어 퍼퓸 블랑슈**는 비비드와 베르데의 베르데 향을 함유한 향과 더불어 모발에 볼륨감을 선사한다(100g 3만 1천원). 인위적인 향보다는 자연스런 가벼운 향을 선호하는 여성이라면 **이베다 베르데의 스프레이 온 스킨**을 주목할 것. 이베다 특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레몬, 파슬리 등의 이로운 향이 특징인 제품으로 프로비타민 B5, E 성분이 들어 있어 윤까지 보완한다. 미끈 모발에 제품을 뿌린 뒤 빗질하면 향과 함께 활력은 머릿결을 완성할 수 있다(100ml 3만 6천원).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향이 특징인 샤넬 샴푸 퍼퓸을 썩 빼놓은 **샤넬 샴푸 오 후레쉬 헤어 미스트**는 임종맞은 사이즈의 사랑스러운 보들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플로럴 계열의 향수지만 여성스러운 느낌보다는 활기 있고 생기 넘치는 향에 가깝다. 손안에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로 한 번 뿌릴 때마다 상쾌한 향이 번져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한다(35ml 5만 7천원). 비비드, 레몬, 그레이프 프루츠 에센셜 오일이 상큼한 시트러스 향을 풍기는 **복시 명 시트러스 바네나 미스트**는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모발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특히 콜링 효과가 있어 두피 온도를 낮추고 향수보다 가벼운 분사식으로 모발이 풍치는 것을 막아준다(75ml 2만 2천원). 은은한 그린리 향기로 장수리의 불쾌한 냄새를 단번에 잡아줄 **존 마스터스 오가니 그린리 & 칼라멜리 리본 캔디싱 미스트**는 카마리엔, 로즈베리 등 10가지 유기농 인공향을 받은 에센셜 오일과 그린리 샴푸가 모발까지 보호해주는 효자 아이템이다. 텍스처가 가벼워 모발이 기름지지 나 무거워지지 않아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125ml 4만 9천원). **에디터 김지혜**



흥겨운 악단이 있는 전원 풍경을 담은 비치 드레스 1백45만원 **플레이엔가버나**.



내추럴한 무드기느끼지는 리미아 클러처, 26x17cm, 53만원 **로플라렌달 by 라용**.



히트 닷 모양의 스랭글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데님 팬츠 가격 미정 **필립올레안**.



꽃 장식을 더한 복고풍 선글라스 27만6천원 **프린 by 유티칼 더블유**.



비치 드레스에 매치하면 더욱 예쁜 드롭형 이어링 1백만원대 **루이 비통**.



컬러 스티드와 화려한 패턴으로 장식한 웨지힐 샌들 1백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화이트 버블 장식이 눈에 띄는 레드 컬러 웨비스 수영복 60만원 **에르메스**.

for her Selection

사각사각한 비치 드레스와 선명한 컬러의 수영복, 햇볕을 가려줄 파나마 햇과 바다를 연상케 하는 액세서리까지, 자, 이제 바다로 떠날 일만 남았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편안하고 내추럴한 비치 룩을 완성해주는 라미아 완성형 띠 **파피어나 필리피**, 65500원



아자수 프린트 스카프 27만5천원 **타임**.



편한 내추럴이 가득 들은 289500원 **로플라렌달 by 라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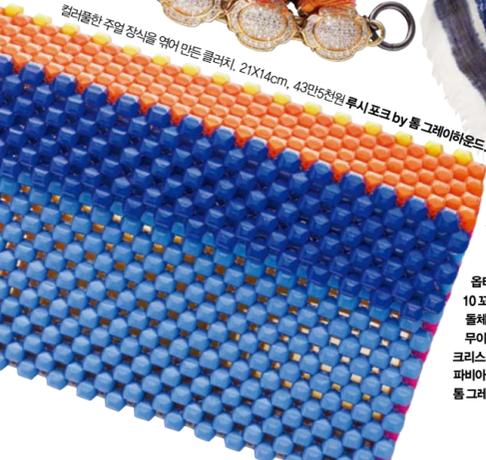


푸른 바다를 연상케 하는 청완한 블루 컬러의 주얼 네크리스 98만원 **역송프라세르트 by 10 로르스 코모**.

스타일링이슈 유망형 이스타일링 이세팅, '빅웨이' 에디터 권유진



태슬 장식이 돋보이는 메탈 걸찌 80만원대 **베나 by 무이 엑세서리**



라용 02-517-8533
타임 02-3438-6175
필립올레안 02-544-9132
에르메스 02-544-7722
루이 비통 02-3432-1854
유티칼 더블유 02-522-4343
10 로르스 코모 02-3018-1010
플레이엔가버나 02-3444-0077
무이 엑세서리 02-3446-8074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파피어나 필리피 02-6905-3626
통 그레이하운드 02-3442-3696



투톤의 핑크 컬러를 매치한 링을 38만원 **에르메스**.



낙엽의 수줍음과 강렬한 디자인으로 감각적인 손색이 비치백으로 손색이 없는 네버폴 MM 라미아 주 소파백, 289500원, 1백만원대 **루이 비통**.

Elegance is an attitude

Simon Baker
Simon Baker

LONGINES®



Conquest Classic Moonphase

신세계백화점 본점 영등포 경기 인천 센텀시티 의정부 충청 AK플라자 수원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롯데면세점 본점 월드타워 코엑스 부산 제주 인천공항 워커힌면세점
신라면세점 본점 제주 인천공항 신세계면세점 동화면세점 엔타스면세점
아워패션 롯데월드를 코엑스몰



for him
Selection

상상만 해도 즐겁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휴가를 위해
당신이 미리 준비해야 할 바캉스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원색의 플라워 패턴이 돋보이는
셔츠 타입 수영복 가격 미정
를 보러오.

생동감 넘치는 컬러의
리파이 모자 52만원
를 보러오.

여행지에서 높은 초안을 써
편안한 텐트 스타일 by 10 포스트 코모.
어디서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휴대용 접이식
의자 13만8천원
뉴키즈 노앙.

골드 프레임이 멋스러운
보일 선글라스 1백만원대
더 by 나스월드

개성 있는 정글 프린트의 팬츠 39만원
풀스미스.

아이폰-태블릿 로고
패턴의 수영복
7만원부터 보러오!

스트라이프 머린
패턴의 2015 서머
삼매인 3만원대 상품.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필수 카메라
파워샷 D30 37만4천원 캐논.

스포츠한
밀착 디테일이
돋보이는 스트랩
샌들 가격 미정
랑방 올므.

앞면의 스트라이프 장식이 포인트인
슬림한 백팩 2만원부터 보러오!

찰터 도트 스타일로
나만의 다양한
패턴을 더할 수 있는
트렁크 37X53cm,
29만9천원
닷 드롭스 by 라움
보이지.

캐논 1588-8133
상동 02-2188-5100
토즈 02-3438-6008
몰비우어 1544-5393
나스월드 02-512-2225
풀스미스 02-772-3549
브리오니 02-6905-3760
랑방 올므 02-6905-3496
바오바오 02-6905-3989
롤브라운 02-6905-3505
뉴키즈 노앙 02-755-6557
라움 보이지 02-540-4723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10 포스트 코모 02-3018-1010
롤 그레이하운드 02-3442-3696

위트 있는 햄버거
패턴이 눈에 띄는
수영복 11만5천원
메이드 인 파라다이스
by 롤 그레이하운드.

특별한
주요 패턴의
트트백,
46X45cm,
가격 미정
보여오.



포르쉐는 Mobil을 권장합니다. www.porsche.co.kr

스포츠카와 SUV의 융합
나의 심장이 뜨거워진다- 마칸

The Porsche Macan.
Life, intensified.



-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Macan 75,600,000원 배기량 1,984cc, 7단 자동 PDK, 도심연비 8.0km/l, 고속도로연비 10.5km/l, 복합연비 8.9km/l, 복합 CO₂ 배출량 및 등급 199g/km 5등급, 공차중량 1,850kg.
Macan S Diesel 82,400,000원 배기량 2,997cc, 7단 자동 PDK, 도심연비 10.5km/l, 고속도로연비 13.4km/l, 복합연비 11.6km/l, 복합 CO₂ 배출량 및 등급 172g/km 3등급, 공차중량 2,030kg.
Macan S 84,800,000원 배기량 2,997cc, 7단 자동 PDK, 도심연비 6.3km/l, 고속도로연비 8.9km/l, 복합연비 7.3km/l, 복합 CO₂ 배출량 및 등급 248g/km 5등급, 공차중량 1,940kg.
Macan Turbo 107,400,000원 배기량 3,604cc, 7단 자동 PDK, 도심연비 6.3km/l, 고속도로연비 8.9km/l, 복합연비 7.2km/l, 복합 CO₂ 배출량 및 등급 250g/km 5등급, 공차중량 2,000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포르쉐 차량 시승 및 문의는 공식 포르쉐 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포르쉐 센터 대치 02.2051.0911 / 포르쉐 센터 서초 02.440.0911 / 포르쉐 센터 분당 판교 031.729.0911 / 포르쉐 센터 분당 서현 031.735.0911 / 포르쉐 센터 일산 031.813.0911 / 포르쉐 센터 인천 032.450.3000
 포르쉐 센터 대전 042.862.0911 / 포르쉐 센터 대구 053.768.0911 / 포르쉐 센터 광주 062.526.0911 / 포르쉐 센터 부산 051.749.0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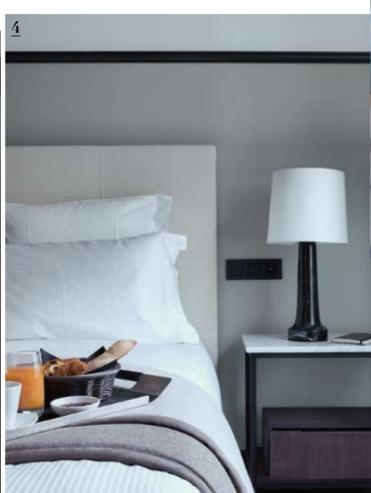


interview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파리의 디자이너 듀오

Gilles & Boissier

요즘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러브콜을 받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듀오가 있다. 10여 년에 걸친 파트너십을 다져온 파트리크 기(Patrick Gilles)와 도로시 부아지에(Dorothee Boissier)다. 기 & 부아지에 스튜디오라는 간판을 내걸고 활동하는 이 파리지영 크리에이터 듀오는 이국적인 색채와 자신들의 디자인 감각이 어우러진 레스토랑부터,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부티크 호텔과 럭셔리 브랜드 매장, 내로라하는 인사들의 홈 인테리어와 초특급 프리미엄 호텔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파리지영다운 도도한 세련미가 뚝뚝 떨어지지만 지나치게 장식적이지 않고 따스한 자연스러움이 공존하는 디자인 세계가 꽤나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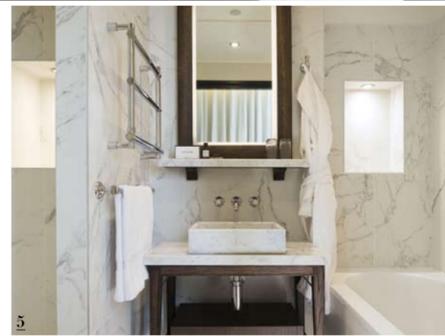


1 파리에서 기 & 부아지에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파트리크 기와 도로시 부아지에. ©Patrick Swirc 2 지난해 여름 오페라하우스와 갤러리 라피에트 백화점이 자리한 파리 9구에 문을 연 부티크 호텔인 체스 호텔. 블랙 & 화이트의 톤로가 인상적인 호텔 로비에는 실제로 체스판이 마련돼 있다. 3-7 50개의 객실을 갖춘 체스 호텔은 세련된 가구와 나무 바닥, 단아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소품이 전반적으로 시크하고 모던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준다. 사진 제공: 체스 호텔 8 파리에 있는 일스타당 카누가와(Kinugawa) 프로젝트. ©Mathieu Salvaing 9 올봄에 문을 연 뉴욕의 바키라 호텔. ©Eric Laignel 10 몽클레어의 레모 루피니 CEO의 의뢰로 작업한 스위스 생모리츠의 스키 리조트 별장. ©Sisters Agency 11 '모던 아시안' 스타일을 지향하는 뉴욕 레스토랑 부다칸(Buddakan). 12 기 & 부아지에의 아파트 스타일 파리를 'L'autre Appartement'. ©Mathieu Salvaing



히 주관이 강한 아티스트 2인의 가치관과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조화시켜나갈까? “저희는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성향이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안주하게 만들 수도 있는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오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채찍질하죠. 저는 아이디어를 말로 풀어내는 걸 좋아하고 파트리크는 그걸 그림으로 옮기는 걸 좋아하고요.” 도로시의 말이다.

몽클레어에서 바키라 뉴욕까지, 럭셔리업계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는 환상의 듀오 이들이 처음으로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계기는 뉴욕에 있는 부다칸(Buddakan)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찾아왔다. 미국 레스토랑계의 거물 스타틴 스타가 오픈한 이 레스토랑은 ‘모던 아시안’을 지향하는 이국적인 스타일로 당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기 & 부아지에 스튜디오는 그 뒤로 레스토랑 디자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크리에이터 그룹 중 하나로 떠올랐다. 부티크 호텔의 선구자 중 하나로 불리는 이인 슈레거와 손잡고 뉴욕 그라머시 파크 호텔의 레스토랑인 와키야(Wakiya, 2007)를 디자인하면서 명성을 쌓았고,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뭌바이, 아부다비 등 세계 주요 도시에 있는 중식 레스토랑 브랜드 하카산(Hakkasan)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스타당 카누가와(Kinugawa), 헥사곤(Hexagone) 등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에서 레스토랑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저희는 초반부터 글로벌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방법론을 배우는 일을 정말로 즐겨왔어요.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려면 일단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또 저희에게는 아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우리 인테리어에 접목하면서 풍성함을 더하는 일이 작업의 핵심이 루지요.” 이들의 세련된 예술 감각과 절제된 디자인의 조화로운 감각을 사랑한 브랜드 중에는 명품 패딩으로 유명한 몽클레어도 있다. 기 & 부아지에 스튜디오는 서울 청담동 매장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 있는 몽클레어 주요 매장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았고, 올해와 내년엔 걸쳐 리뉴얼 프로젝트 결과물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몽클레어의 CEO 레모 루피니(Remo Ruffini)의 의뢰로 스위스 생모리츠와 이탈리아 코모에 자리 잡은 별장의 인테리어, 그리고 요트 인테리어까지 담당하기도 했다. 최근 이들이 가장 역동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 럭셔리 호텔이다. 체스 호텔을 비롯해 역시 파리 마들렌 지역에 있는 하얏트 호텔의 레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고, 멕시코 포시즌스와 뉴욕의 바키라 호텔 프로젝트도 맡았다. 최상급 호텔을 담당하더라도 이들이 추구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손님을 초대하고 싶은 자신의 집처럼 꾸민다는 것이다. “호텔도 집과 같은 곳이야요.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 자신의 집에 머칠 동안 머물도록 할 때, 편안하면서도 손님의 주의를 끄는 여러 요소를 갖춘 공간으로 환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가짐과 크게 다르지 않죠.”



친란한 문화유산 덕분에 건축업자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파리는 조심스럽게 새로 단장하는 건물을 보는 재미가 있는 도시다. 큰 뼈대를 건드리는 대신 은근하고 세심한 손길로 세로운 느낌의 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키는 ‘환골탈태 프로젝트’가 더러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파리 중심가인 9구에 자리 잡은 오페라하우스와 갤러리 라피에트 백화점 근처 거리에도 주목할 만한 최신 사례가 생겨났다. 번잡한 도심에서 세련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체스 호텔(www.thechesshotel.com)이다. 특히 이 매력적이고 아담한 부티크 호텔은 최근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 자신들만의 세련되고 우아한 파리지영 스타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 & 부아지에(Gilles & Boissier)의 작품이라 더 눈길을 끈다. 파리를 기지 삼아 세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부부 디자이너 파트리크 기(Patrick Gilles)와 도로시 부아지에(Dorothee Boissier)가 꾸리는 건축·인테리어 스튜디오다.

파리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요한 휴식처, 떠오르는 부티크 호텔 '체스'
“우리는 가장 북적거리는 파리 중심가에 고요함을 불어넣고 싶었어요.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한 공간을 창출하려고 애썼죠.” 이들의 설명처럼 묵시도 복잡한 도심에 위치한 체스 호텔은 일단 안으로 들어서면 풍경이 확 바뀌는 느낌이 들 정도로 꽤나 사적인 적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체스(Chess)’라는 이름은 로비 플로어의 블랙 & 화이트 무늬에서 영감을 받아 붙인 것이다(다이닝 공간이기도 한 로비에서는 실제로 체스를 둘 수 있다). 객실은 고급스러운 진갈색 우드 플로어와 세련된 가구, 단아하면서도 앙증맞은 소품이 전반적으로는 시크하고 모던한 느낌을 창출하면서도 살짝 자연미도 풍긴다. 모든 객실에는 깔끔한 호텔 로고가 들어

간 하얀색 목스킨 노트가 놓여 있다. 목재와 대리석의 조화가 돋보이는 최신식 욕실 역시 이 호텔의 장점이다. 럭셔리한 분위기가 풍부하면서도 부담스럽지는 않은 절제미와 실용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균형의 미학. 이것이 바로 기 & 부아지에 듀오의 언어다. 사실 이들은 세계를 무대로 호화로운 호텔이나 ‘핫한’ 고급 레스토랑, 부호들의 저택을 주로 담당하는 ‘럭셔리 프로젝트’에 익숙한 크리에이터들이다. 그런 배경에서 볼 때, 50개 방을 갖춘 아담한 4성급 호텔인 체스 호텔 프로젝트에는 제약이 꽤 많이 따른 편이었다. 이 자리(6 rue du Helder 75009)에 원래 버티고 있던 낡은 호텔을 재건하는 프로젝트였던지라, 파리의 까다로운 건축 규제 때문에 큰 골격을 뜯어고치지 못한 데다 재료나 요소에서도 ‘넘치지 않는’ 수준에서 잘 추슬러야 했다. “파리에서 진행한 첫 번째 호텔 프로젝트가 체스였는데, ‘백지 위임장’ 같은 창작적 자유를 부여받았어요. 우리는 이 공간에 특별한 콘셉트나 주제를 불어넣고 싶지는 않았고, 그저 고요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우리 특유의 창조적 욕구에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죠. 그래서 예산의 큰 부분은 맞춤형 가구와 아티스트 작품 등 다분히 예술적인 요소에 할애했어요. 순수하게 우리가 선호하는 프렌치 스타일을 구현하고 싶었거든요.”

필립 스타크와 크리스티앙 리에주르의 장점과 자신들만의 개성이 결합된 창조 세계
그들이 사랑하는 프렌치 스타일이란 무엇일까? 이들은 “프랑스 문화는 다양한 영향이 병치된 편인데, 18세기 파리에서는 베르사유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확산됐지요. 응용미술이 문학, 철학, 회화, 음악 등 모든 영역에 반영됐고, 그런 전통이 파리 스타일에 강하게 배어 있

어요. 저희에게는 이러한 파리지영 스타일이 프랑스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 & 부아지에는 프랑스식 바로크와 르네상스 스타일을 21세기에 맞게 새롭게 풀어내고, 비잔틴과 오리엔탈 스타일을 현대식 미니멀리즘에 접목하는 식으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작업을 한다. 하지만 그들만의 스타일로 과하지 않게, 그러나 대담하게 넘어낸다. ‘건축적(architectural), 관능적(sensual), 진정성 있는(authentic)’이라는 형용사가 이 듀오가 직접 고른 단어들이다. 이 커플은 일에서도 사랑에서도 긴 세월을 걸친 파트너십을 자랑한다. 둘 다 20대 초반이던 1995년 프랑스의 저명한 가구·인테리어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리에주르 스튜디오(Christian Liaigre Studio)에서 일하게 되면서 처음 만났다. 프랑스 인테리어업계 최고의 장인으로 평가받는 리에주르를 만난 건 행운이었다. 파트리크는 2002년 자신의 스튜디오를 차리면서 독립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도로시는 크리스티앙 리에주르를 떠나 프랑스가 자랑하는 디자인 거장 필립 스타크 스튜디오로 옮겨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경력을 쌓고 있었는데, 결국 2004년 둘이 힘을 합쳐 기 & 부아지에 스튜디오(www.gilletboissier.com)를 설립했다. “파트리크는 원래부터 인테리어와 가구 디자인을 했고, 저는 원래 정치학을 전공했다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파트리크는 처음부터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방식이 독특했는데, 매우 예술적이었어요. 함께 일하면서 우리 둘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많은 전문가들은 기 & 부아지에의 공동 작업에는 ‘스승인 크리스티앙 리에주르의 품격 있으면서도 단아한 감각, 섬세한 디테일과 완성도, 그리고 필립 스타크의 감성 능력까지 반영돼 있지만 무엇보다 그들만의 우아한 감각이 두드러지기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아무리 커플이라지만 상당

예술 감각과 자연애, 그리고 감성 지능이 빛어내는 세련된 인상
실제로 파리에 있는 파트리크와 도로시 부부의 자택 사진이 의도치 않게 공개된 적이 있는데, 훨씬 단순하고 편안한 분위기일 뿐이지 특유의 예술적이면서도 과하지 않게 자연미가 흐르는 디자인 감성은 그들의 작업과 비슷했다. 블랙 & 화이트 색상이 전반적인 배경을 이루지만 딱딱하거나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목재를 풍부하면서도 세련되게 사용했다. 거기에 주로 원목을 재료로 한 아트 퍼니처와 사진, 그림, 오브제 등 예술 작품을 곳곳에 놓아 풍요롭지만 과하거나 느끼하지는 않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공간이라 대중에게 알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단순한 느낌으로, 웅성함을 배제하고 인테리어 작업을 했어요. 다만 우리가 진행하는 상당수의 고객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죠. 평가에 끌려다니지도 않고요.” 많은 이들에게 ‘살고 싶은 집’이라는 찬사를 받는 자신들의 보금자리에 대해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기 & 부아지에 듀오가 갈수록 많은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아마도 집이든 호텔이든 레스토랑이든 “그냥 우리 자신의 창조적 욕구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고 노력한다”라는 신조를 갖고 작업 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는 그들의 말처럼 원칙은 있어도, 억지스러운 꾸밈이 없는 디자인에 공감하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18** 에디터 고영민, 매리 헨지 취재

두 개의 골프장을 오롯이 담아내다

바람이 찾아 드는 언덕의 곡선을 그대로 이어 올려
 앞으로는 용평G.C., 뒤로는 버치힐G.C.의 조망이 가능한 곳
 대관령의 깨끗한 바람과 자작나무가 전하는 맑디 맑은 산소 테라피까지
 용평리조트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곳
 Birch Hill Terrace Residence입니다

극히 소수의 선택되신 분들을 모십니다.
 Birch Hill Terrace Residence

회원모집문의 02.3270.1137

대관령과 서울의 기온차이
연간평균 5°C
 ※출처: <http://www.kma.go.kr>



시스루 프린트 티셔츠
지방시 by 리카르도 타시,
레이스 뷔스티에 라펠라,
레드 워싱 팬츠 발랑, 코낙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바형태의 반지 베켓.

Urban edge

클린하고 차분한 이미지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보다 성숙해진 눈빛으로 배우 한지혜가 무심하게 카메라 앞에 섰다.
photographed by park jung min



화이트 민스메 블라우스 빅토리아
베김 by 분더샵, 블랙 프릴 장식
소프트 팬츠 타군 by 쿤, 블랙
스웨이드 글래디에이터 샌들
스튜디오 와이츠먼, 티파니 T 스케어
브레이슬릿 로즈 골드,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모두 티파니.



블랙 드레이프 원피스
발광, 블랙 스트랩 슈즈
로저 비비에, 빅 사이즈 후프
이어링 에르메스.



다양한 가죽과 메시
소재를 믹스한 크롭트 톱,
블랙 하이 웨이스트 팬츠
모두 알렉산더 왕.



블랙 실크 V넥 원피스
이크네 스튜디오 by 에크루,
레이어드 체인 네크리스
에르메스.



판창 디테일의 네이비 톱, 화이트
와이드 팬츠 모두 셀린느, 아틀라스
라운드 팬던트 스텔링 실버 네크리스
티파니, 감자에 깐 상단크르 더블 링
에르메스, 약자에 깐 티파니,
T 스캐어링 화이트골드 티파니.

골드 톤 오가닉 by 에크루,
블랙 가죽 쇼츠 생로망,
스타드 장식의 앵글무츠
스튜디오 와이츠먼.



스트라이프 재킷, 블랙 가죽
레깅스 모두 생로망, 약자에
긴 듀얼링, 중저에 긴 세 줄
밴드 링 모두 비터스윗 by 룬.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션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헤어 윤성호
메이크업 박이화
캐스팅 다렌터 안상미
스타일리스트 유한정
어시스턴트 이세영
에디터 권유진

라벨라 02-501-7180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발랑 02-6905-3585
분더샵 02-2056-1232
백켓 02-547-5211
생로망 02-549-5741
셀린노 02-540-0486
스튜디오 와이츠먼 02-6905-3991
알렉산더 왕 02-3446-7729
에르메스 02-544-7722
에크루 02-545-1233
지방시 02-517-7560
룬 02-548-4504
티파니 02-547-9488



kitchen in Fantasy

1845년에 태어난 이래 주방들의 꿈으로 자리매김해온 독일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 휘슬러(Fissler). 브랜드 창립 1백70주년을 맞이한 휘슬러는 조리를 예술로 끌어올린다고 할 만큼 빼어난 제품 역량 못지않게 아트 캠페인에서도 남다른 내공을 드러내왔다. 2007년부터 '여성의 삶과 영감'을 주제로 다양한 아트 캠페인을 선보여왔는데, 올해는 브랜드 차원에서 창조적 인연을 맺은 아티스트 17인과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펼쳤다. 주방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재기 발랄한 작품들은 요즘 한창 주목받고 있는 식문화의 의미를 꼽아보게 했다.

‘인간은 조리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마음에 와 닿는 시기가 있을까. ‘떡방’, ‘국방’으로 도배된 TV 속 콘텐츠 때문만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네 일상에서는 건강하고 맛난 먹을거리를 둘러싼 관심이 몹시도 팽배하고, 특히나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할까?’라는 음식에 대한 접근 방식이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즐겁고도 편리한 ‘부엌의 소중함’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기도 한데, 이러한 가치를 휘슬러처럼 섬세하게 구현해내는 브랜드는 흔치 않다. 창립 1백70년의 전통 위에 혁신을 새겨온 브랜드의 단단한 내공이 한국에서도 뿌리를 내린 지 어느덧 17년. 내로라하는 국내 아티스트 17인이 그 세월을 수놓은 휘슬러 특유의 탄탄한 본질과 창의적인 소통을 영감으로 삼은 매혹적인 작품 세계를 펼쳐 보였다. 그래픽, 사진, 미디어 아트, 설치물 등 다채로운 형태로 녹여낸 아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전시 <키친 인 판타지(Kitchen in Fantasy)>다.

예술을 입은 ‘키친, 브랜드 가치를 속삭이다

<키친 인 판타지> 전시장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건 날렵한 몸매를 자랑하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커다란 말 모양의 물체였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박진우의 타임리스(Timeless)라는 작품. 늙음하게 서 있는 이 은마(銀馬)는 자세히 보면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다양한 휘슬러 멤버들이 모여 유연한 곡선을 만들면서 탄탄한 몸체를 이루고 있는데, 공간을 장악하는 힘이 느껴진다. 말은 소제로 선택한 이유가 자못 흥미롭다. 물성이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유연한 생명체를 표현함으로써 ‘말=길들이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휘슬러라는 브랜드가 한 방향만 보고 질주하는 말처럼 꾀없이 달려온 1백70년의 시간을 기리고 싶었다고.

냄비에서 창조되는 요리를 새로운 작은 우주처럼 바라보는 시각예술가 빠키의 작품 ‘반원 안의 양자 요동’도 흥미로웠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음식이나 조리 도구가 실상은 귀한 생명을 유지해주는 원천인 만큼 보다 나은 식환경을 위해 ‘원박’을 지향해온 브랜드의 가치를 은연중에 일깨워준다. 이에스더 디자이너의 양중맞은 캐리커가 돋보이는 ‘솔라 패밀리(Solar Family)’는 한술밥을 먹는 식구(食口)의 소중함을 기분 좋게 일깨워주는 작품이다. 가족의 본질적인 유대감을 예술적인 감성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휘슬러 프리미엄 라인 ‘솔라’ 문양과 컬러가 근사하게 녹아들어 있다. 가족, 연인, 친구 등이 누리는 ‘식탁의 기쁨’을 염두에 두고 최상의 품질과 기능에 힘써온 기업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준다.

정경계 온기를 나누는 소통의 미학

주방은 자연스럽게 온기가 흐르는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존재의 가치가 증명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빼어난 첨단 기능으로 무장했음지라도 삶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온기가 생겨나지 않는 법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전시에서 따뜻하고 세밀한 정성을 강조한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온기 가득한 부엌의 리듬을 선보인 ‘쿠닝 팻 퍼커션(Cooking Pot Percussion)’은 일상적인 주방의 소리를 샘플링 작업으로 뽑아내 이를 바탕으로 만든 리듬을 담은 작품인데, 냄비와 주전자 내용물이 끓고 있는 풍경이 정경계 느껴진다.

‘모던 유포피아 리빙’을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자연과 음식에 관련된 개념을 흥미롭게 해석해온 설치미술 그룹 베리퍼그스의 작품이다. 수증기를 모티브로 삼아 작업한 영상이 인상적인 김희원 작가의 작품 시리즈도 온기를 만드는 정성의 미학을 보여준다. 벽면 위로 보이는 45초짜리 영상은 룩톱에 휘슬러 냄비를 올려



물을 끓여 수증기가 위로 올라오는 순간까지를 카메라에 담고, 요리할 때 나는 17가지 소리를 곁들였다.

“우리는 주방이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창조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상의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작품의 영역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고, 작품과 교감하면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싶었습니다.” 1백7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찾은 휘슬러의 마커스 켈가 글로벌 CEO는 이렇게 밝혔다. 거창하게 브랜드 파워나 출중된 기술력을 내세우는 데 치우지기도 않는 따스하고 진지한 시선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이번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창조적 소통’에 성공한 듯하다. **에디터 고영선**

1 휘슬러 탄생 1백7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키친 인 판타지)가 서울 신사동 호랑아트센터 JNB2갤러리에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렸다. 강연회 사진작가 등 국내 아티스트 17인의 다채로운 아트 콜라보레이션이 펼쳐졌다. 벽에 부착된 기념품은 휘슬러 제품 박스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275C의 작품 'FB & FB'. 휘슬러 룩스타 문양을 적용한 모듈형 스피커는 기구 디자이너 국중훈의 작품. 2 돌보이되는 생명의 산보를 반박로 표현한 시각예술가 빠키의 반원 안의 양자 요동. 3 커다란 은마(銀馬)를 연상케 하는 작품으로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박진우 작가의 'Timeless'. 4 이에스더 작가가 오랜 사랑을 받아온 휘슬러의 솔라 문양을 활용해 만든 쿠이온 캐리커 솔라 패밀리 시리즈. 5 창립 1백70주년 기념전을 찾은 휘슬러의 마커스 켈가 글로벌 CEO.



1 이날 탕웨이씨가 착용한 시계는 12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로 이루어진 다이아마스터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그녀의 우아한 드레스와 완벽하게 매치되어 빛을 발했다. 2.4 다이아마스터 컬렉션의 또 다른 신제품인 다이아마스터 그랜드 세컨드 오토매틱 워치. 2개의 다이얼이 배치된 듯한 디자인이 유니크하다. 3.5.7 여성스럽고 우아한 다이아마스터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워치. 6리도의 홍보대사인 배우 탕웨이와 라도의 CEO 마티아스 브레스찬. 8 육안으로는 메탈처럼 보이지만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만든 하이퍼블록 플라즈마 오토매틱 워치.

high-tech Alchemy

지난 6월 10일, 중국 베이징 다산쯔 예술촌은 전 세계 각국 기자들의 열띤 취재 열기로 들쭉였다. 여배우 탕웨이가 스위스 워치 브랜드 라도(Rado)의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론칭 행사에 참석한 것. 이날 선보인 다이아마스터 컬렉션은 우아한 그녀의 손목 위에서 아름답게 빛을 발했다. 뜨거웠던 현장과 라도의 혁신을 집약한 다이아마스터 컬렉션을 소개한다.

워치메이킹의 혁신, 라도(Rado)

‘라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혁신적인 소재다. 베젤과 케이스에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세라믹을 시계에 최초로 접목한 것 역시 라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라도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소재와 기술력을 접목한 워치 컬렉션을 선보여왔는데, 1962년에는 하드 메탈을 사용한 세계 최초 스크래치 방지 시계인 다이아스타를, 1986년에는 시계업계 최초로 하이테크 세라믹을 더한 인테그랄을, 2004년엔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주 강력한 내구성과 경도를 자랑하는 신소재 V10K 워치를 선보이는 등 신소재 개발에서 라도를 따라잡을 브랜드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라도를 이야기할 때 혁신적인 소재, 기술력 외에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젊은 감성을 कै치한 감각적인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다. 무려 30여 개의 디자인상을 수상한 화려한 경력 이를 증명해준다. 더불어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편하고 스타일리시한 하이엔드 오토매틱 워치를 3백만원대부터 8백만원대까지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라도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매력 포인트다.



현대적 연금술, 다이아마스터 컬렉션

용두 없이 터치식으로 작동하는 히든 테크 시계부터 컬러 베리메이션을 적용한 세라믹 워치까지, 라도의 이름 뒤에는 늘 ‘혁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매년 바젤 페어에 라도가 어떤 기발한 시계를, 또 어떤 새로운 소재를 선보일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는데, 올해 단연 돋보인 신제품은 바로 다이아마스터 컬렉션이다.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을 사용한 이 워치 컬렉션은 라도만의 특허 기술인 플라즈마 공정을 통해 오로지 블랙과 화이트로만 컬러 표현이 가능했던 하이테크 세라믹에 다양한 컬러 베리메이션을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스릴 컬러의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워치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 육안으로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보이지만 제품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듯 100% 세라믹 소재로 만든 시계다. 금속 성분을 일절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세라믹만으로 메탈 컬러를 표현해낸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술력이 아닐 수 없다. 스테인리스 스틸과의 차이점은 좀 더 깊고 진한 컬러감으로 기품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처음 그대로의 광택과 컬러를 유지한다는 점. 또 광택이 가볍고 스크래치에 강하며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요소다. 게다가 소재의 온도가 착용자의 체온에 맞춰지니 제2의 피부와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이 놀라운 플라즈마 공정은 화이트 하이테크 세라믹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온의 오븐에서 굽는 신터링 공정이 끝난 후 폴리싱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뤄진다. 세라믹 파트를 진공 용기에 넣고 20,000°C의 열을 가하면 공기 중의 메탄과 수소가 활성화되고, 주변의 세라믹 조각과 반응하면서 탄소가 발생해 독보적인 플래티넘 컬러로 변하는 원리다. 지난 6월 10일에 개최된 베이징 행사에서는 바로 이 획기적인 신제품 다이아마스터 컬렉션을 공식적으로 론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홍보대사로 참석한 탕웨이는 12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로 이루어진 베이지색 가죽 스트랩의 다이아마스터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시계를 착용해 그녀의 우아한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현대적 연금술’이라는 테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이 새로운 컬렉션에 대해 라도의 CEO 마티아스 브레스찬과 탕웨이는 하이테크 세라믹의 세계에 대해 소개했고, 참석자들은 반짝이는 불빛에 둘러싸인 행사장에서 신비로운 현대 연금술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이날 탕웨이는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작년 라도 가족으로 함께 활동하면서부터 줄곧 내 자신과 라도의 하이테크 세라믹 시계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매우 편안하고 매력적인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시계는 세련된 감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필수 아이템이에요. 독특한 컬러의 메탈릭한 광채는 어느 옷에도 잘 어울려서 어떤 장소에서든 빛을 발할 거예요’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베이징 이벤트에서는 라도를 자신만의 색깔로 우아하고 아름답게 착용한 탕웨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신제품과 함께 신화 속 뮤즈의 모습을 한 탕웨이를 담은 라도의 첫 번째 TV 광고가 최초 공개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라도의 신제품, 다이아마스터 컬렉션은 국내에서는 7월부터 판매되며, 탕웨이가 행사 때 착용한 대표 모델은 3백25만원이다. 문의 02-3149-9582 **에디터 권유진**

몽블랑 나이트 플라이트 컬렉션
 남성들의 로망이 된 몽블랑의 레더 컬렉션 중
 경량성과 내구성을 모두 갖춘 나이트 플라이트
 라인으로 나일론 소재로 일독과 수납, 스크래치에
 강하고 디테일은 레더 소재를 사용했다.
 서류 가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류언트
 케이스는 여행과 출장에 모두 유용하고,
 플라이트 트래블 지갑 역시 안쪽에 14개의
 신용카드 수납 기능을 갖춘 것은 물론
 비행기 티켓과 필기구 보관함까지
 더해 실용적이다.



몽블랑 헤리티지 퍼페추얼 캘린더
 몽블랑의 전설적인 만년필 마이스터스틱
 컬렉션 탄생 9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워치
 컬렉션. 39mm 다이얼,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퍼페추얼 캘린더,
 문레이즈 기능이 담아 클래식하다.
 화이트 살버 다이얼은 사랑으로 뿜어내는
 듯한 햇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봄베 다이얼로 고안해 입체적이다.



드라이빙 슈즈로 유명한 페라카모는
 맞춤 양복을 넣어 드라이빙 슈즈까지 주문 제작할 수
 있는 MTO(Made to Order)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진 속 이사진이 착용한 편안한
 드라이빙 슈즈 역시 맞춤 제작한 제품이다.



메탈릭 그린 버클 디테일의 와인 컬러
 스웨이드 드라이빙 MTO 슈즈
 가격 미정 **살버토레 페라카모**.

Precious classics

워치부터 만년필, 레더 아이템까지 럭셔리 브랜드의 정수를 아름답게 펼쳐낸 몽블랑(Montblanc).
 클래식함과 실용성, 브랜드의 고유한 가치까지 우아하게 드러내는, 몽블랑을 대표하는 컬렉션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Jet-set chic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페라카모의 고귀한 유산과 장인 정신을
 담은 드라이빙 슈즈가 더 특별해졌다. 취향과 새로운,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을 수 있는 맞춤 슈즈, 페라카모
 드라이빙 슈즈 MTO 서비스를 소개한다.

**몽블랑 보헤미안
 데이트 오토매틱**

클래식한 여성 시계를 원하는
 이들을 만족시킬 몽블랑의 우아한
 보헤미안 컬렉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레드 골드 버전으로 30mm
 지름의 다이얼,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로 화려함을 더했다. 여성의
 폴리츠스카트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얼의 기묘세 패턴이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몽블랑 문화 예술 후원자상 펜

매년 문화 예술을 후원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후원자상 펜 컬렉션 중 (왼쪽) 2014년에는 현대
 파야노의 창시자인 스타인웨이(Steynway)를 기념해
 E. 스타인웨이 리미티드 에디션 4810을 선보여
 그랜드파야노 모터보로 완성했다. (오른쪽)
 2015년에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미티드
 에디션 4810을 출시했는데, 파바로티가
 무대에서 즐겨 입었던 블랙 턱시도, 화이트 셔츠,
 화이트 보타에서 영감을 받아 블랙 레커 보디와
 화이트 레커 캡으로 완성했다. 캡을 우아하게
 감싼 도금 클립은 파바로티의 상징인 스키프
 모양이다. 문의 02-2118-6053 에디터 **배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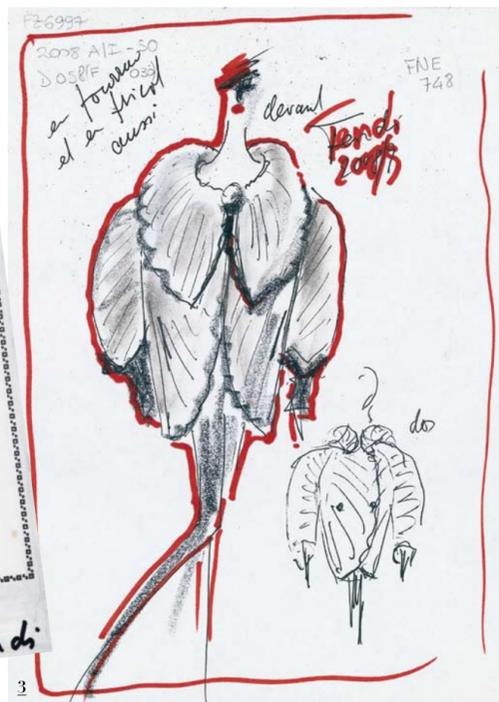


메탈릭 그린 버클 디테일의 그레이
 컬러 스웨이드 드라이빙 MTO 슈즈
 가격 미정 **살버토레 페라카모**.



페라카모 홈페이지(driver.ferragamo.com)에서는
 나만의 맞춤 드라이빙 슈즈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미니 사이트를 만날 수 있는데
 소재와 색상, 장식은 물론 밑창과 이너
 서비스까지 원하는 디자인으로 선택 가능하다.
 문의 02-3430-7854 에디터 **배미진**





the great Expectation

50년의 협업, 놀라운 패션의 진화

펜디(FENDI)의 FF 로고가 단순히 브랜드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Fun Fur'라는 칼 라거펠트의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구태의연한 표현임에도 패션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칼 라거펠트와 펜디의 협업이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다. 그리고 반세기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로마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브랜드와 천재적인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는 트렌드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고, 패션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갔기에 이 기록들을 올해 책으로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하거나 패션 디자이너와 협업해 브랜드를 발전시키는데, 그 어떤 브랜드도 한 명의 디자이너와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공유한 예가 없다. 패스트 패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패션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펜디와 칼 라거펠트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피와 가죽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의 위대한 유산은 1925년 로마에서 아델 펜디와 에두아르도 펜디 부부가 세운 패션 하우스에서 시작되었다. 뒤이어 모피와 가방을 판매하는 최초의 펜디 매장이 문을 열었는데, 1950년대에 창립자 부부의 다섯 딸인 파올라·안나·프랑카·카를라·알다 펜디 자매는 여성의 취향이 급진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열정적인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모피 제작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1965년에는 드디어 칼 라거펠트가 펜디에 합류했는데, 이때부터 변신을 넘어 혁명적인 디자인이 등장했다. 값비싸고 무겁고 뱀뱀해 신분과 부를 과시하는 것으로 치부되었던 모피를 현대적인 흐름에 맞는 트렌디한 의상으로 재창조해 모피의 스타일은 물론 소재와 제작 기법에 변화를 준 것이다. 그 시대에는 모피가 없어 보인다는 이미지로 통할 정도로 진부한 카테고리였기에 칼 라거펠트의 역할은 더욱 놀랍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새로운 연구소를 세워 모피 재발견의 선봉장이 되었다. 가죽을 자르고 쉼은 물론, 무늬를 새기고 새로운 태닝 기법과 처리 기술을 연구했다. 그렇게 가볍고 부드럽고 편안한 데다 입기 편한 모피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펜디는 새로운 종류의 모피를 선보였다. 1966년 펜디와 칼 라거펠트가 처음으로 선보인 1966~67 F/W 컬렉션이 언론에서 찬사를 받은 이유다. 그 후 칼 라거펠트는 펜디의 새로운 로고를 디자인하기도 했는데, 'Fun Fur'를 의미하는 더블 FF 로고는 모피를 위한 특별한 수공예 기술을 보유한 로마 브랜드, 매종 펜디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모피의 가치를 재발견하다

1971~72년 F/W 컬렉션을 통해 펜디와 칼 라거펠트는 아스투치오(Astuccio)라는 비대칭 핏의 케이프를 선보였다. 이는 랫아웃 기법을 사용한 모던한 디자인으로, 지금까지도 그와 유사한 디자인이 출시되고 있다. 새로운 직조 기법을 개발하거나 모피에 주름과 색을 넣고 안감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줄무늬 효과를 실험하기도 했다. 가죽의 무게를 줄이고 안을 뒤집어 밖으로 보이도록 고안한 것도 펜디가 처음 선보인 방법이다. 1980년대에는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켜 인상과 화가처럼 모피에 색을 입히거나 부풀린 모피를 디자인하는 등 실험을 계속해 모피가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요소로 안착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사회·문화적 요구에 부합하며 창조 정신을 발휘해 끊임없이 모피를 연구하고 해석해온 펜디의 노력 덕분에 모피는 다시 중요한 소재로 자리매김했고, 펜디는 새 천 년을 맞이한 후에도 혁명의 여정을 이어갔다. 칼 라거펠트가 스케치한 모순적이고도 개성 있는 모피 디자인처럼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고, 압착하고 부풀렸기에 모피가 무거운 이미지를 벗고 패션의 중심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이다. 1983년에는 칼 라거펠트가 펜디를 위해 디자인한 새로운 패턴인 페퀼을 디자인했는데, 짙은 갈색과 어두운 갈색을 번갈아 배치한 줄무늬인 이 패턴은 모피 제작과 의류, 액세서리에 적용되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펜디와 칼 라거펠트는 긴 시간을 보낸 만큼 이탈리아, 로마의 모든 순간과 함께했는데, 1985년 GNAM(로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펜디와 칼 라거펠트, 작업 여정(FENDI and Karl Lagerfeld, Un Percorso di Lavoro)>전을 개최했고, 이듬해에 오페라 <카르멘>에서 태닝과 모피를 조합한 무대연출을 선보이는 진귀한 기록을 남겼다. 1990년 로마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에서는 결승전을 앞두고 머리에 로마의 기념물을 쓰고 공연을 펼친 무용수들의 의상을 디자인했고, 2007년에는 중국 만리장성에서 패션쇼를 선보이며 패션 역사에 한 획을 긋기도 했다. 해가 질 무렵 중국인 44명과 국적이 다양한 44명으로 이루어진 총 88명의 모델이 80m에 이르는 만리장성 캣워크를 걸어 내려오는 장면은 패션계에서도 여전히 회자되는 일대 사건이다. 이 모든 것은 놀라운 가치를 지닌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4



1 1988~89 웨이브 퍼 컬렉션을 위한 스케치. 2 1971~72 F/W 컬렉션에서 선보인 기하학적이고 비대칭적인 패턴의 아스투치오(Astuccio) 퍼 스카치. 당시로서는 드물게 퍼를 디자인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해 펜디와 칼 라거펠트의 조우가 더욱 빛났던 순간이다. 3 2008 F/W 컬렉션에서 선보인 24K 골드 퍼 스카치. 초고가 소재로 오직 펜디만이 할 수 있는 시드리는 평가를 받았다. 4 펜디와 칼 라거펠트 협업 5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펜디 바이 칼 라거펠트> 북. 1백유로대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5 7명의 도시 칸에서 열린 펜디 부티크 전경. 6 9 새로운 책의 출간을 위해 칸 부티크에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 칼 라거펠트와 펜디의 의상을 입은 셀러브리티들. 8 프레젠테이션에 펜디의 미니드레스를 입고 참석한 할리우드 모델 캔달 제너. 10 칼 라거펠트와 펜디 CEO 피에트로 베카리.



8



10

50년의 기록이 담긴 <FENDI BY KARL LAGERFELD> 출간
 펜디와 칼 라거펠트가 함께한 시간들은 패션 아카이브에 기록해야만 하는 모두의 유산이기에 올해 이들이 매력적인 책을 발간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기사에 더한 아름다운 패션 일러스트들이 펜디와 칼 라거펠트가 함께 출간한 특별한 책 <펜디 바이 칼 라거펠트(FENDI BY KARL LAGERFELD)>에 담겨 있는 패션 거장의 작품이다. 펜디 아카이브를 심도 있게 탐구한 이 책에는 칼 라거펠트가 이 특별한 책을 위해 새롭게 작업한 흥미로운 자료와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스케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펜디의 창조 정신과 모던함, 브랜드의 유산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기 위해 칼 라거펠트는 스크랩 북을 모티브로 책을 완성했다. 긴 세월을 표현하기 위해 나무 상자에 다양한 모티브를 담았는데, 칼 라거펠트가 펜디와 함께 일하면서 작업한 스케치 2백 점, 그의 스케치 5만 점을 아주 작은 크기로 줄여 조정한 특별 포스터, 칼 라거펠트가 회상하는 펜디와의 추억, 그가 스케치를 하는 모습을 담은 DVD, 영상 내용을 기록한 일러스트레이션 부록, 그리고 펜디의 오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새로운 일러스트레이션까지 패션 세계의 모든 면면을 엿볼 수 있는 기록적인 에피소드를 다뤘다. 또 다른 부록에는 칼 라거펠트가 수년간 디자인 해온 펜디의 모든 로고와 1백20점가량의 스케치가 있으며, 마지막 부록에는 칼 라거펠트와 나눈 50문 50답이 수록되어 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5월 21일 칸 국제영화제를 통해 전세계에 공개해 그 의미를 더했다. 펜디는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소식을 전했는데, 바로 이 책을 처음 선보인 프랑스 칸에 펜디 부티크를 다시금 연다는 것. 명망 높은 크루아제트 거리 44번지에 위치한 이 매장은, 푸른색과 미색, 금빛으로 우아하게 장식해 품격 있는 코르다쥬르의 분위기를 표현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펜디 액세서리와 가죽 제품이 보이며, 질푸른 카펫이 여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모피와 의류를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을 아름다운 패턴의 벽지로 꾸민 것도 눈에 띈다. 이 곳에서 새로운 책을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세계적인 셀러브리티들과 함께 개최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펜디의 회장이자 CEO인 피에트로 베카리 “국제적이며 화려한 도시 칸에서, 특히나 영화제가 열리는 때 완벽한 펜디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매장은 칸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프랑스인을 위한 것이며, 세계를 향한 펜디의 장이기도 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 공간에는 펜디와 칼 라거펠트가 지난 2013년 7월 파리에서 열린 <물의 영광(The Glory of Water)>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을 다시 담아냈다. 로마의 분수들을 촬영한 이 사진 컬렉션의 주제는 펜디가 설립된 곳이자 무한한 영감의 원천인 로마를 배경으로 한 리브 스토리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오는 7월 펜디가 최초로 파리 오토 쿠튀르 패션 위크에 데뷔할 것임을 발표했다. ‘오트 푸튀르(Haute Fourrure)’라 명명된 새로운 컬렉션을 통해,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의상을 선보이며, 1925년부터 펜디가 모피 분야에서 고수해온 최상급의 창조 정신과 장인 정신을 궁극적으로 표현한다. 패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첫 오트 푸튀르 패션쇼 역시 칼 라거펠트와 펜디의 협업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 피에트로 베카리는 “오트 푸튀르 컬렉션을 통해 처음으로 파리 오토 쿠튀르 패션 위크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펜디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모피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과 창조 정신을 궁극적으로 표현하며, 현대적인 관점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모피의 세계에 혁명을 불러온 펜디 고유의 장인 정신을 펼치는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칼 라거펠트가 펜디와 함께하기 시작한 1965년부터, 미래를 향한 시선과 서로에 대한 열정, 존경을 바탕으로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유대관계가 지속되었다. 칼 라거펠트는 “나에게 모피는 펜디, 펜디는 모피이며, 모피는 유쾌하죠(Fur is Fendi and Fendi is Fur, Fun Furs). 펜디는 내 창조 정신의 이탈리아 버전입니다. 펜디 오토 푸튀르 패션쇼는 화려한 모피 중의 모피를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주목해야만 합니다”라고 밝혔다. 1960년대 패션의 메인 스트림에서 사라진 모피라는 구태의연한 소재를 다양한 컬러와 기법, 실루엣으로 다시 탄생시킨 펜디와 칼 라거펠트의 가치가 21세기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이 이번 쇼를 통해 더욱 명백해질 것이라 기대해본다. 에디터 배미진



Immortal masterpiece

착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예술품은 없다. 하지만 시계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예술품이라는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영국 여왕이 소장한 시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아주 작은 부품에까지 패턴을 새겨 넣는 브랜드, 연 5만 개가 넘는 제품을 모두 핸드메이드로 만들 수 있는 힘, 제네바와 런던에서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자존심, 파텍필립의 진면모를 확인했다.

1백76년 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키다

파텍필립(Patek Philippe)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지 시계 산업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1백76년의 역사, 파텍필립 실로 상징되는 독자적인 기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자사 매뉴팩처, 런던 사치 갤러리에서의 대규모 전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브랜드란 바로 이런 것이다. 1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 생산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그것도 한국인으로서의 최초로 말이다. 제네바를 지나 버스로 2~3시간 이동해 도착한 라쇼드퐁 파텍필립 다이얼 매뉴팩처와 뉴 프록트 센터는 오직 파텍필립의 제품만 생산하는 특별한 장소다. 특히 2010년에 설립한 9,000㎡의 뉴 프록트 센터는 기존에 출어져 있던 3개의 시계 제조 공장부품 생산, 폴리싱, 주얼 세팅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였으며, 로터와 밸런스 휠 등 시계의 핵심이 되는 부품부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든 보일까 말까 한 0.03g의 아주 작은 부품을 생산한다. 생산한 부품의 조립과 무브먼트 제작이 이루어지는 메인 심장부는 제네바 플라망-레-주이트에 위치한 파텍필립 워크숍이다. 예상과 달리 최신식으로 꾸민 워크숍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다른 시계 브랜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정인의 작업복부터 주변에 놓인 도구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연출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연륜 깊은 시계 전문가 2백여 명이 조용하고 진지하게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은 엄숙한 분위기마저 감동케 했다. 이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파텍필립 샵(Patek Philippe Seal)에 대한 것이다. 파텍필립은 2009년부터 하이엔드 워치의 기준이 되는 제네바 샵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자체 품질 인증 마크인 파텍필립 샵을 채택했다. 가장 대중적인 크로노미터 인증인 COSC보다 2배 엄격한 제네바 샵을 넘어서는 인증 시스템을 가치는 파텍필립 자체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의 결과다. 그 어떤 브랜드도 넘볼 수 없는 이 위상은, 시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언급되는 '파테오니카'라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는 증거다. 파텍필립의 수장 티에리 스텐은 4년 안에 플라망-레-주이트 본사 워크숍의 모든 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고 확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생산 부품 수를 1천5백만 개로 늘리고, 약 4억5천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5천4백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매뉴팩처를 리뉴얼하고 첨단화적인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단지 수익과 매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개발과 투자, 수의 창출의 순환 구조가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업으로서의 가치 역시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더불어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파텍필립의 투자는 스위스 시계 산업 기술을 고양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5백 년의 스위스 시계 유산을 한눈에 보다

'시계 박물관'이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시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시계의 수도, 제네바에 있던 이야기가 달라진다. 시계의 역사는 곧 스위스의 역사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년에 설립한 4층 건물인 파텍필립 뮤지엄은 2천여 개가 넘는 시계, 예술품, 시계 사적 등 5백 년의 스위스 시계 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파텍필립이 설립된 1839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파텍필립의 모든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다. 그 때문에 파텍필립 뮤지엄은 살아 있는 시계의 사원이라 불리며 시계 전문가들은 물론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필수 방문 코스다. 뮤지엄에 소장된 시계의 수는 상상 그 이상이라 모든 층의 제품을 다 보려면 하루가 꼬박 걸린다. 과연 이 방대한 양의 뮤지엄 피스를 생산해낼 만한 브랜드가 몇이나 있을까? 더불어 파텍필립의 오랜 고객이었던 빅토리아 여왕, 아인슈타인, 차이코프스키, 리하르트 바그너 등이 소장했던 시계를 직접 보고 싶다면 이 많은 뮤지엄 피스를 수집한 파텍필립의 노력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파텍필립의 모든 시계는 역사의 기록을 위해 한 피스씩 뮤지엄 피스로 박물관에 소장·전시된다는 점이다. 만약 파텍필립을 소장한 이가 이곳에 방문한다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예술품과 동일한 제품, 혹은 같은 브랜드의 제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술로서의 시계를 말하다

이번 출장에서 들은 가장 놀라운 소식은 파텍필립이 스위스가 아닌 런던에서, 그것도 세계적인 예술가를 배출하는 등용문으로 알려진 사치 갤러리에서 오로지 파텍필립의 시계만을 다룬 전시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파텍필립의 전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는데, 2012년 두바이에서, 2013년 독일 뮌헨에서 전시가 열렸으며 이때 각 전시를 기념한 그 나라의 한정판을 만들었다. 이번 런던 전시 역시 특별 한정판인 런던 리미티드 에디션 5종의 모델을 함께 선보였다. 21개의 룸을 총 다섯 가지 테마로 구분한 전시 공간은 파텍필립의 히스토리 영상부터 역사적인 타임피스, 최근에 출시한 시계, 자사 무브먼트까지 브랜드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계 역사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장소다. 파텍필립의 시계 중 수억 원대에 달하는 리미티드 워치는 기존의 파텍필립 고객 중 사회적 자유와 재산 규모를 평가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부합하는 고객이어야 비로소 소유할 수 있다. 이렇듯 판매 방식에서도 철학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파텍필립의 고객 리스트도 실로 화려하다. 이는 갤러리 1층에 자리 잡은 로열 컬렉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 빅토리아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 1세,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왕이었던 오스카르 2세 등을 꼽을 수 있다. 작년에 출시한 1백75주년 기념 시계인 양면형 워치(케이스 몸체를 앞뒤로 돌려 두 가지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계) '그랜드 마스터 차임 진정성은 줄을 서서 보아야 할 정도로 가장 인기 있었던 색선, 7년의 개발 기간, 2년의 생산 기간을 거쳐 다 개발하기도 힘든 20가지의 복잡한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갖춘 것은 물론 6개의 특허 기술을 적용하고, 1천5백80개의 부품을 사용한, 몸값만 해도 29억 원에 달하는 아트피스가기 때문. 또 한쪽 벽면에는 칼리버 3000의 시계 도면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자신감을 드러냈다. 천문학적인 가격임에도 하이엔드의 진정한 가치를 원하는 이들은 오직 파텍필립만을 바라본다. 시계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매가 아닌' 소장의 개념으로 확장한 데도 파텍필립의 공이 크다. 스위스의 전통 있는 시계 브랜드로 시작해 제네바를 넘어 런던으로, 그리고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둔 파텍필립의 진정한 가치가 국내 시계 소비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기대해본다. 문의 02-2118-6030

에디터 권유진·제네바·런던 현지 취재



1 히트-한터 케이스를 장착한 양면형 타임피스인 파텍필립 스티 칼리버 2000. 6개의 특허 기술과 21개의 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시계에 담아낸 최초의 포켓 워치다. 런던 빅 벤의 완벽한 오리지널 멜로디를 5개의 공 웨스트민스터 차임 기술을 적용해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2 파텍필립 매뉴팩처에서는 자격을 갖춘 시계 장인 2백여 명이 근무하며 연간 5백만 개의 시계를 생산하고 있다. 3 파텍필립은 4대째 이어 내려온 가족 경영 워치메이킹 브랜드다. 왼쪽이 명예 회장 알렉스 스텐, 오른쪽이 그의 아들인 사칭 티에리 스텐. 4 파텍필립의 역사는 물론 5백 년간의 스위스 시계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파텍필립 뮤지엄의 내부 전경. 5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소장한 아름다운 진주 브레이슬릿 워치. 6 COSC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춘 파텍필립 샵이 새겨진 무브먼트. 7 로열 컬렉션 중 가장 화려한 모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블루 펜던트 워치.



scent of Vitality

마드모아젤 샤넬은 찬스랑 오직 그것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낙천적인 돌풍과 함께 실려온다고 이야기했다. 아주 즐겁고 생기 넘치며,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행운의 기회가 찾아올 것만 같은 샤넬 샵스는 그녀가 종종 말한 이 찬스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독립적이고 개성 있는 여성을 위한 향수다. 울여름, 샵스 마니아들을 설레게 할 네 번째 신제품, 샵스 오 비브가 재기 발랄한 광고 영상과 함께 또 다른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 앞에 첫선을 보인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생기 넘치는 감각, 샵스 오 비브

특 쓰는 오렌지 향의 강렬한 첫 느낌을 시작으로,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그레이프 프루츠의 달콤함, 잔잔하고 은은하게 퍼지는 제스민과 화이트 마스크의 부드러운 향까지, 신제품 샵스 오 비브의 향은 한디로 정오해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선사한다. 올해 출시 12주년을 맞은 샤넬의 베스트셀링 향수 샵스는 2003년 샤넬 전속 조향사인 자크 폴주의 손에서 탄생한 이후 2007년 상류한 시트 라스 계열의 샵스 오 후레쉬를, 2010년 우아하고 부드러운 플로럴 향의 샵스 오 몽드르를, 그리고 올해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신제품 샵스 오 비브를 출시하며 네 가지의 샵스 컬렉션을 완성했다. 샤넬의 전설적인 향수이자 클래식한 여성 향수를 대표하는 N5를 우아하고 성숙한 여성에 비유한다면, 시팅감이 동그랗고 투명한 보틀에 담긴 샵스는 독특 튀는 프레시한 향으로 개성 있고 시련스러운 시체를 연상케 한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공기처럼 가볍고 독보적인 향취로 오로지 향만으로도 살이 출기움과 생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샵스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이번엔 선보이는 샵스 오 비브는 자크 폴주의 아들 올리비에 폴주 약 8개월에 걸쳐 탄생시킨 이상적으로, 첫 향을 맡는 순간, 시간이 지난 뒤에 풍길 잔향이 공명해줄 만큼 아주 강렬한 매력에 지녔다. 샤넬 특유의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향은 그대로이지만 아주 신뜻하고 상쾌한 향이 더해져 더운 여름 시즌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생동감 가득한 광고 크리에이션

3명의 쇼커가 지켜보는 가운데 샵스 보틀 링이 내려오고, 한 쇼커가 샵스 오 비브 병을 집어 든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와 함께 레인을 향해 호수병을 아주 힘차게 굴러 던진다. 그 결과는 스트라이크 승리를 지극하며 쇼커들은 다 같이 또 다른 기회를 향해 향수병을 던진다. 이는 출기움이 가득하고 활기 넘치는 30초짜리 샵스 광고 캠페인의 내용으로, 새로운 향수인 샵스 오 비브의 탄생을 기념해 제작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장-폴 구드의 감각적인 터치로 완성한 필름은 샵스 걸 팀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대담하고 강한 의지를 가진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출기움과 우정, 그리고 멋진 도전을 추구하는 그녀는 볼링 게임에서 자신도 기회를 잡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샵스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이 영상의 전체적인 스토리다. 이처럼 시련스럽고 재기 발랄한 샵스 오 비브의 광고 캠페인만 보아도 샵스 오 비브와 기존 샵스 컬렉션이 지닌 독특 튀는 매력을 단번에 캐치할 수 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감각적인 영상은 샤넬의 샵스 홈페이지(chane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ml 11만8천원, 100ml 16만8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editor's Pick

여름철 스킨케어의 기본은 그 무엇보다 수분 관리다. 건조한 사무실에서 촉촉함을 지켜줄 미스트부터 잡자는 동안 확실한 보습을 도와줄 마스크까지. <스타일 조선훈> 기자들의 완벽한 피부 만들기는 여름에도 계속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베레비트 데이 리얼 컬러 마스크**라 얇아름 수영장이나 샤워 피터에서 돋보이고 싶다면 이 제품을 눈여겨볼 것. 깨끗하게 정리한 피부에 이 매혹적인 블루 마스크라 해 노란 포인트를 주면 신비로우면서 섹시 있는 메이크업이 완성될 테니까. 예쁜 컬러는 물론 속눈썹을 풀린 듯 풍성한 속눈썹까지 연출해준다. 8.5g 3인1천원대. 문의 080-001-2363. *by 에디터 권유진*

다들 루즈 다들 028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이는 매력적인 코랄 핑크 컬러에 이가다 싶었다. 뛰어난 발색력과 부드러운 발랄성까지 갖춘 컬러에 가까운 립스틱으로 얼마나 덧붙여나에 따라 청순한 코랄부터 사랑스러운 핑크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3.5g 4만원. 문의 02-3438-9631. *by 아사스틴트 에디터 박혜미*

마키토 코스메틱 에센스 마스크 자가 시트 마스크에 싫증을 느꼈다면 클래식한 마스크 제품으로 돌아가보자. 전성분이 진주 클라리피 마스크 팩의 효과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알코올이 없는 시트가 얼굴에 맞춘 것처럼 달라붙어 촉촉함이 뛰어나며, 에센스와 필 클라리피 성분을 함유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1세트 6개 12만원. 문의 02-3445-5104. *by 에디터 배미진*

블라지 오파류에 오 메 볼루 오드 코롱 중국의 우렁차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아로마틱 플로럴 계열의 향수. 다른 브랜드에서 접할 수 없는 이국적인 향이 단연 돋보인다.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싱그러움 라벤더를 사재해 부드러운 아이리시스와 머스크로 마무리되는 피우더리한 향이 매력적이다. 75ml 12만3천원. 문의 080-990-8889. *by 아사스틴트 에디터 박혜미*

해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자칭 쿠션 마-이로서 해라가 선보인 리버스 쿠션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유란즉스 칙체, 알기 발리면서 피부 톤 보정이 가능하다는 것. 둘째, 피부가 내용물을 흡수하지 않고 피부에 고스란히 잔존해준다. 점 마저적으로 피부 노화 예방에 좋은 와인 추출물과 온온한 향기로 한결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15gX2 5만8천원대.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김지혜*

결명 진달 품 워터 레디언트 플렌지 가벼운 텍스처의 무수 타입 클렌저. 물에 닿으면 살가운 크림으로 변해 부드럽게 세안할 수 있다. 여름철 지어온 차가운 피부를 맑게 씻어내고 싶을 때, 오일 클렌저는 부담스럽고 피부 당김이 걱정되는 여성에게 추천한다. 150ml 7만8천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배미진*

사벨 레 가블르 웬브르 피페 제즈 피페 제즈라는 컬러링차림 리디미컬한 블루 컬러 팔레트가 매력적인 4주 아이샤도. 미세한 광을 함유해 신비롭게 반짝이는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해주는데, 컬러감이 부담스럽지 않아 아이메이크업 활용에도 좋다. 2g 7만7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권유진*

에스티 로디 뉴트리셔스 바이올리타 8th 레디언트 듀얼-페이스 에멀전 항산화 효과를 지닌 식물이 주성분인 뉴트리셔스는 에디터가 즐겨 쓰는 스킨케어 라인이다. 붉은 컬러의 패키지만 보아도 안티에이징 효과가 느껴질 정도. 이 라인의 모든 제품의 강점은 촉촉함인데, 새롭게 선보인 에멀전은 에센스만큼 뛰어난 보습 효과를 선사한다. 100ml 9만2천원. 문의 02-3440-2522. *by 에디터 배미진*

랑콤 인드라젠 솔리드 팩 어떤 피부 타입에도 잘 맞을 촉촉하고 끈적임이 덜한 솔리드 팩. 끈끈한 세럼 인 마스크 텍스처로, 비르고 찬 다음 날 아침 탭 탭한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용량이 넉넉하고 사용 방법이 쉬워 선물용으로도 훌륭하다. 75ml 8만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배미진*

크라니크 차비 스킨 세도우 린트 포 아이즈 크래용을 담은 아이샤도 스틱, 눈두덩에 쓱쓱 쓸어준 뒤 손가락으로 펴 버리면 자연스러운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특히 핑크 & 플렌지 컬러는 은은한 핑크 컬러로 발색이, 맨 얼굴에 발라도 예쁘다. 3g 2만7천원. 문의 02-3440-2773. *by 에디터 권유진*

카멜 울트라 세이실 오일 프리 켈 크림 카멜의 일등 공신 수분 크림인 울트라 세이실 크림의 여름 버전. 날씨가 더워지면 수분 크림도 가벼워야 한다. 비록 즉시 수분을 채워주는 가벼운 젤 타입의 크림으로, 오후만 피부가 번들거리는 여성에게 제격이다. 특히 멘톨 성분이 피부를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더위에 지친 피부를 진정시킨다. 50ml 3만9천원대. 문의 1899-3322. *by 에디터 김지혜*

멜비타 로즈 플로럴 워터 사무실에서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 뿌리는 제품이다. 가끔 피부에 맞지 않는 미스트는 오히려 유익한 수분을 유출시킨다. 이 제품은 모든 성분 100% 천연 원료로 이루어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뿌릴 때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장미 향기가 인상적이며 세안 후 스킨케어에 귀찮을 때 토너 대신 사용해도 좋다. 200ml 2만9천원. 문의 02-3014-2997. *by 에디터 김지혜*

오엠 갠텔라 브라이트닝 세럼 한 번도 실패하지는 법이 없이 까다로운 피부를 만족시키는 이탈리아 유가농 브랜드 오엠의 신제품 화이트닝 세럼. 신제품을 자주 선보이는 브랜드가 아-기 에 더 확실한 효과를 담은 제품임을 증명한다. 얼굴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가볍게 핸드클렌징하면 거짓말처럼 피부에 속 스며든다. 30ml 11만5천원. 문의 02-517-5513. *by 에디터 배미진*



배우로서의 뚜렷한 작품관, 아름다운 외모, 차분하고 매력적인 목소리, 그리고 맑고 투명한 피부 등 그녀는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대륙의 여신 탕웨이. 그녀가 SK-II 한국의 새로운 뮤즈로 우리 앞에 섰다.

여성들의 워너비 아이콘, 탕웨이

세계적인 여배우로 거듭난 탕웨이는 영화부터 CF, 김태용 감독과의 결혼까지 유독 한국과 인연이 깊다. 부드럽고 우아한 얼굴선과 깊이 있는 눈빛, 차분한 중저음의 목소리와 깨끗한 피부는 여성들의 워너비 아이콘이 되기에 충분하다. 탕웨이의 매력에 빠진 팬들이 불위가 미녀라는 말로 그녀를 칭송하기까지 할 만큼 한국에서의 인기는 실로 대단하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만추>도 그녀의 라이프 스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다. 지금은 그녀의 남편이 된 김태용 감독과 배우 현빈과의 작업으로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산 작품으로, 영화 속 탕웨이는 그녀만의 매력이 드러나는 스타일로 또 한 번 시선을 사로잡았다. 화장이 없는 얼굴과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헤어스타일, 오버사이즈 트렌치코트로 완성한 룩은 새로운 트렌치코트 스타일의 표본이 되었을 정도로 따라 하고 싶은 스타일이었다. 특히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를 보며 그녀의 스킨케어 비법을 궁금해했다. 이런 그녀에게가 가능했던 것일까. 탕웨이가 7월부터 SK-II의 한국 모델로 선정되었다. SK-II는 모델을 선정할 때 제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실제로 SK-II 제품을 사용하는 여배우를 모델로 기용해왔다. 탕웨이 역시 그중 한 사람으로 배우 김희애, 이연희와 함께 한국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탕웨이는 "피테라 에센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피부 컨디션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며, 해외 촬영 시에는 언제나 여러 병을 챙겨 피테라 미스트를 수시로 뿌리고 있다. 뷰티 강국인 한국의 모델이 되어 영광스럽고 한국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좋은 영감이 되고 싶다"라고 오랜 피테라 에센스의 로열 유저로서 한국 모델이 된 소감을 전했다. 아름다운 배우는 많다.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넘어 여자로서 닳고 싶은 배우는 흔치 않다. 탕웨이는 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 연기에 대한 열정과 과감한 선택이 돋보이는 배우로, SK-II가 추구하는 진취적인 여성상을 잘 대변해주는 모델인 동시에 로열 유저로서 제품에 대한 진정성을 더해줄 것이다.

탕웨이의 피부 기적, SK-II 피테라 에센스

올해로 탄생 35주년을 맞이한 SK-II는 피테라 에센스 하나만으로 여성들의 뷰티 루틴을 바꾼 주인공이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선물 받고 싶은 제품 중 하나로 꼽히는 피테라 에센스는 수많은 여성들을 비롯해 여배우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탕웨이도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자신을 피테라 에센스 마니아라고 일컬으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오랜 시간 피테라 에센스를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피테라 에센스를 사용하고 눈에 띄게 달라진 점에 대해 그녀는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피부 톤이 밝아졌다"고 전했다. 특히 피테라 에센스가 단지 화장품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겨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아름다운 여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며, 피부 운명을 바꿔준 제품이라고 전하며 제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탕웨이는 피테라 에센스로 피부 운명을 바꾼 것처럼 그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왔다. 10여 년 전 대학교에서 영화감독론을 전공했지만 배우가 되었고, 앞으로 20년 뒤에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그녀는 도전, 새로운, 변화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주어진 운명의 하나로 여긴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운명이 닥쳤을 때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확실한 목표 의식이 느껴진다. 안정적인 선택보다 뚜렷한 작품관과 인생관을 통해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탕웨이. 이런 탕웨이의 스토리는 SK-II의 'Change Destiny' 슬로건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으며, 그녀가 SK-II와 보여줄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쯤에서 여배우도 반하게 만든 피테라 에센스의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피테라 에센스는 SK-II의 과학자가 발견한 천연 발효 성분인 피테라TM 원액을 90% 이상 담은 에센스다. 미네랄, 아미노산, 비타민 등의 성분이 피부 세포와 매우 흡사해 피부 리듬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피부 고민을 자극 없이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특히 부드럽게 스며드는 워터 타입 입입에도 에센스라 불리며 여성들이 써보고 싶은 뷰티 아이템으로 손꼽힌다. 그런 이유로 출시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탕웨이의 피부 비밀인 SK-II 피테라 에센스로 당신의 피부 운명을 바꿔 보는 건 어떨까. 문의 080-023-3333 에디터 김지혜



마세라, 아미노산, 비타민 등 피부 세포와 흡사한 피테라TM 성분 90% 함유된 SK-II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가벼운 워터 타입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맑고 투명한 피부 리듬을 되찾아준다.

Real . organic

천연 원료를 아낌없이 사용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며, 탄탄한마니아층을 확보한 멜비타. 올바른 뜨거운 태양에 자극받은 피부를 지켜줄 멜비타의 스킨케어를 주목해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멜비타, 프랑스 유기농 스킨케어를 말하다

월경으로 시작해 디톡스, 유기농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관심이 화장품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진짜를 찾기는 쉽지 않다. 수많은 제품 중 유기농 화장품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바로 성분을 확인하는 것. 원료 재배 과정에서부터 살충제나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천연 성분 중 유기농 성분이 95% 이상이라면 믿을 수 있는 유기농 화장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유기농 화장품의 엄격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브랜드 멜비타를 소개한다. 멜비타는 1983년 프랑스 청정 지역이라 불리는 아르데슈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홀리로운 탄생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 멜비타의 창립자이자 생물학자 베르나르 세발리아는 아르데슈 지방에서 양봉을 시작했을 당시 환경오염으로 꿀벌들이 감소하는 것을 보며 자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 뒤로 친환경적인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벌집에서 얻은 원료를 바탕으로 유기농 비누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라틴어로 꿀을 뜻하는 '멜(mel)'과 삶을 뜻하는 '비타(vita)'를 합성해 '멜비타(Melvita)'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만들고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을 탄생시켰다. 특히 멜비타의 모든 제품은 에코서트와 코스메비오 유기농 인증을 받아 피부가 민감한 사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연이 주는 선물, 멜비타

뜨거운 햇빛에 날씨뿐만 아니라 피부 온도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럴 때는 피부를 진정시켜 미스트가 필요하다. 멜비타의 '로즈 플로럴 워터는 유기농 장미 꽃잎을 종류해 고농축 플로럴 미스트로 탄생시켰다. 사실 장미 미스트는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멜비타처럼 신선한 장미를 아낌없이 투지한 제품은 드물다. 멜비타는 로즈 플로럴 워터 1L를 만들기 위해 1kg 이상의 장미 꽃잎이 사용된다. 공정 무역 인증을 받은 다마스크 장미와 애센셜 오일 성분을 함유한 이 제품은 특히 여름철에 사용하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외출 시 가방 속에 넣고 피부가 뜨거워졌다고 느낄 때 가볍게 뿌리면 수분을 부여해주는 동시에 상쾌한 쿨링 효과를 선사하며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킨다.

다. 메이크업 전후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법 또한 간편하다. 거기에 은은한 장미 향까지 더해 짐시나마 릴랙싱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로즈 플로럴 워터와 함께 멜비타 하면 떠오르는 오일, '필드 드 로즈 듀오'는 멜비타를 대표하는 플로럴 워터와 오일을 블렌딩한 제품으로, 아성 장미를 원료로 해 은은한 향이 일품이다. 아성 장미의 열매인 로즈힙은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해 지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 꽃잎에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아쿠아 포인 성분 이 함유되어 있어 여름철에도 건조한 피부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단비가 되어 줄 것이다. 끈적이지 않고 피부에 걸리지 않아 특유의 번들거림 때문에 오일 제품을 사용하지 않던 이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오일 제품이 손에 닿어 달라붙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가볍게 뿌릴 수 있는 스프레이 타입이라 손에 제품을 묻히지 않고 바를 수 있다. 특히 메이크업 후 필드 드 로즈 듀오를 얼굴 라인을 따라 뿌리면 반짝이는 물광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멜비타는 천연 성분이 듬뿍 담겨 먹으면 서예해질 수 있는 이너뷰티 제품을 선보였다. 트러블 피부로 화장품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여성에게 희소식이 되어줄 제품으로 우영, 로즈메리 등 식물 성분 추출물과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스킨 임퍼펙션 앰플'은 간편하게 피부 속부터 관리할 수 있다. 함께 출시된 '로열젤리 사클먼트'는 자칫기 쉬운 계절에 활력을 불어넣는 오가너 로열젤리와 메이부 시럽, 천연 오렌지 향을 가미해 아이들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특히 이너뷰티는 만들 수 있는 브랜드 선택이 중요하는데, 멜비타의 오가너 이너뷰티 제품이라면 맛있게 즐기면서 피부를 관리할 수 있어 2배의 만족감을 선사해줄 것이다. 로즈 플로럴 워터 200ml 3만8천원, 필드 드 로즈 듀오 50ml 3만9천원, 스킨 임퍼펙션 앰플 10mlX20개 5만원, 로열젤리 사클먼트 10mlX20개 5만5천원. 문의 02-3014-2997 에디터 배미진, 김자혜



1 유기농 장미 꽃잎 종류가 듬뿍 담긴 로즈 플로럴 워터와 아성 장미 열매인 로즈힙 성분이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해 지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2 로즈 플로럴 워터에 사용하는 다마스크 로즈를 수확하는 모습. 3 멜비타의 탄생지이자 프랑스의 청정 지역으로 불리는 아르데슈. 4, 5 먹으면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멜비타의 오가너 이너뷰티 로열젤리 사클먼트, '스킨 임퍼펙션 앰플'.



summer Base

풍부한 수분 케어 아이템과 피뽕결을 아름답게 연출해주는 프라이머, 깔끔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베이스까지, 뷰티 전문가에게 검증받은 나스의 베이스 메이크업 아이템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끈적임은 버리고 지속력은 확실하게

여름용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너무나 까다롭다. 끈적이거나 들뜨지 않아야 하며 피뽕결과 메이크업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 서머 베이스 메이크업 아이템을 선보이는 브랜드가 바로 나스(NARS)다. 가장 चाह하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스 아쿠아 젤 루미나스 오일프리 모이스처라이저. 산뜻하고 가벼운 수분 젤 타입 크림으로 세안 후 유수분 밸런스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기에 마니악한 지지를 얻고 있다. 모공이 넓어지는 여름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프라이머. 나스 멀티 프로텍트 프라이머 SPF 30/PA+++는 피부를 메이크업을 위한 최적의 캔버스로 만드는데, 자외선 차단과 산화 방지 기능이 갖춘 스킨스마 트한 제품이다. 프랑수아 나스는 뛰어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술적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가볍고 크리미한 텍스처에 피부 보호와 진정 효과를 더한 기능성 메이크업 베이스라 생각하면 된다. 번짐과 뭉침을 방지하는 나스 스마지 프루프 아이세도우 베이스는 나스의 비밀 병기이자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제품이다. 아이세도우 칼라가 산뜻하게 표현되고 생까들 라인에 끼어 묻히는 것을 완벽하게 방지한다. 문의 080-564-7700 에디터 배미진

나스 스마지 프루프 아이세도우 베이스

"나스 스마지 프루프 아이세도우 베이스는 가볍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색도가 생까들에 끼거나 뭉개지지 않고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요즘 셀럽들이 메이크업을 할 때 꼭 쓰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눈가에 색도는 물론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를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유분 때문에 번지가 마련인데, 스마지 프루프 아이세도우 베이스를 바른 후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 밤샘 촬영에도 끄떡없어요." *애뉴얼뷰티 김미소 회장*

나스 멀티 프로텍트 프라이머 SPF 30/PA+++

"나스 프라이머는 가볍고 크리미하게 발려 매끈한 피부를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특히 멀티 프로텍트 프라이머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 햇빛이 강한 여름철 야외 촬영을 자주 하는 여배우들에게 필수 아이템이죠. 여름에도 보습한 피부 표현이 가능한 나스 멀티 프로텍트 프라이머의 힘이 커요." *리얼리뷰 유재복 회장*

나스 아쿠아 젤 루미나스 오일프리 모이스처라이저

"피지 분비가 많은 여름철에는 유분이 많은 것보다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는 제품을 찾게 돼요. 유분이 많은 제품은 모공을 막고 어드름이나 뾰루지를 유발하며 메이크업 후에도 엉겨 붙어 쉽게 지워지지 마련인데, 나스 아쿠아 젤 루미나스 오일프리 모이스처라이저는 젤리처럼 탱탱한 텍스처가 피뽕결 겹겹이 수분을 채우는 것처럼 느껴져요. 가볍고 산뜻하게 마무리되어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쓰기에 좋은 뿐만 아니라 지속력도 뛰어나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재식*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스 아쿠아 젤 루미나스 오일프리 모이스처라이저 50ml 8만9천원. 나스 스마지 프루프 아이세도우 베이스 8g 3만6천원. 나스 멀티 프로텍트 프라이머 SPF 30/PA+++ 30ml 5만원.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프랑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멜비타가 함께하는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가지고 멜비타 매장을 방문하시는 〈스타일 조선일보〉고객에게 오가닉 베스트셀러 2종 로즈 플로럴 워터(28ml), 오가닉 골드 오일(17ml) 체임 키트를 증정합니다.

◆ 기간 2015년 7월 1일(수)~19일(월)

◆ 교환 매장 롯데백화점 본점(02-726-4110), 신사동 가로수 부티크(02-544-2505), 여의도 IFC몰(02-6137-5105), 신세계 센텀시티점(051-745-1425)

※ 증정품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1인 1회 선착순으로 중복 증정 불가합니다.



Biennale di Venezia 2015

이번 휴가는 베니스로 떠나는 것이 어떨까?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가 그 화려한 막을 올렸기 때문. 물의 도시 베니스를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낭만적인데, 세계 유명 미술가들의 작품까지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작가들도 대거 참석하는데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작품으로 한국관을 채웠으며, 국제전에는 김아영, 남화연, 임흥순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11월 22일까지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요 전시와 베니스 여행 노하우.



축지법과 비행술

진정한 여행가라면 축제가 열리는 도시를 다음 행선지로 삼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베니스는 올해 꼭 가봐야 하는 도시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휘트니 비엔날레, 상파울루 비엔날레와 함께 세계 3대 비엔날레 중 하나인 베니스 비엔날레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며, 현대미술 뿐 아니라 건축, 음악, 연극 등 다채로운 독립 행사가 열리는 최고의 축제다. 1895년에 이탈리아 국왕의 결혼 2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한 만국박람회에서 유래되었으며, 올해 56회를 맞았다. 올해는 특히 미술가 백남준과 많은 한국 미술가들의 노력으로 베니스에 한국관이 설립된 지 20주년이 된 해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국관은 베니스의 중심부인 자르디니 공원에 위치한다. 이번 한국관 출품 작가로는 문경원, 전준호 작가가 선정되어 '축지법과 비행술'이라는 7채널 영상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관 바로 앞에 펼쳐진 바다에서 영감을 얻어, 지구가 물에 잠겼다는 가정하에 물 위를 떠도는 한국관을 통해 국가의 경제가 허물어진 가상의 미래 공간을 보여준다. 배우 임수정씨 노 개런티로 주연을 맡았는데, 그녀는 2012년 카셀 도쿠멘타에 출품한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작품 '뉴스 프롬 노웨어(News from Nowhere)'에서도 연기를 보여준 바 있어 더욱 반갑다. 문경원, 전준호 작가는 '축지법과 비행술'을 위해 한국관의 세트를 그대로 재현해 주인공이 보여주는 미래의 하루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중성적인 주인공은 미래의 인류를 대변합니다. 사실 베니스라는 도시는 원래 물에 잠긴 도시인데, 미래의 종말적인 상황을 가정해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상상을 한 것이지요. 생존을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은 한국관에서 고독한 하루를 보냅니다. 한국관에서는 각기 다른 10분, 30초짜리 영상 7개가 동시 상영되는데, 이 시간은 주인공의 하루이자 평생, 그리고 찰나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올림피처럼 현대미술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작가들은 한국관과 베니스 비엔날레의 역사에 주목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한다. 이번 작업은 베니스 비엔날레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큐레이터 오쿠이 엔웨저(Okui Enwezor) 예술감독이 기획한 국제전 <모든 세계의 미래>와도 긴밀한 연장선상에 있다. "축지법과 비행술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가공의 기술인 '축지법'과 순간 이동과 공간 이동에 대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비행술' 개념을 통해, 상상력으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내포한 작품입니다." 축지법과 비행술은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꿈꾸고 경탄하며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 예술의 속성과 비슷하기도 하다. 문경원, 전준호 작가는 미래를 상상하지만 현재를 고민해야 하

는 현대미술 작가로서의 딜레마가 베니스 비엔날레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황금사자상과 은사자상의 주인공들

베니스 비엔날레는 이렇듯 89개국의 국가관 전시와 국제전, 병행 전시 등 크게 세 가지 전시로 나뉜다. 국가관 중에서 30개국의 전시관은 한국관과 마찬가지로 자르디니 공원 내에 있고, 나머지 국가의 전시관은 베니스의 다양한 장소에 흩어져 있다. 병행 전시는 베니스 곳곳에서 진행되는 전시인데, 팔라초와 운하를 건너 아름다운 전시관을 찾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여행자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이 될 것이다. 옛 조선소 건물인 아르세날레(Arsenale)에서 열리는 국제전에는 세계 54개국 1백36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아영, 남화연, 임흥순 작가가 6년 만에 초대받았다. 국제전은 예술감독 기획전의 하이라이트로, 전시 주제 '모든 세계의 미래(All the World's Futures)'를 중심으로 현재의 불안이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평가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비엔날레가 오픈하자마자 영예의 수상자들이 발표되었는데, 국가관 황금사자상은 아르메니아, 본전시 황금사자상은 미국 출신 미술가 에이드리언 파이프(Adrian Piper)가 차지했다. 또 한국 최초로 임흥순 작가가 은사자상을 차지해 화제를 모았다. 백남준 작가가 1993년 독일관 대표로 참여해 황금사자상을 받은 적이 있지만, 한국 국적의 작가가 미술전에서 은사자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 노동자의 삶을 자료 화면으로 만들어 과거에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이라는 유동성과 맞물려 굴레처럼 되풀이되는 역사의 지속성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임흥순 작가의 작품 '위로공단(Factory Complex)'은 가법지만 시적인 영상미를 갖춘 다큐멘터리의 형태로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임흥순 작가는 40년 동안 봉제 공장의 시다로 일한 어머니와 백화점 류류 매장, 냉동식품 매장에서 일하는 여동생의 삶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한국의 여성 노동자 수십 명과 나는 인터뷰와 실험적인 이미지를 교차 편집한 영상으로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역시 국제전에 초청된 김아영은 '제페트, 그 공중 정원의 고래 기름을 드립니다, 헬 3'을 선보였으며, 남화연은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튤립포마니아(tulipomania)에 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8분짜리 2채널 퍼포먼스 영상인 '목망의 식물학을 선보여 관심을 받았다. 남화연 작가의 작품은 튤립 구근의 가격이 폭등하던 17세기의 욕망을 21세기의 금융 시대와 병치한 영상 작품이다.

모든 것은 멀리 이동한다

올해 국가관 황금사자상은 아르메니아 대학살 발발 1백 주년이라는 비극에 헌정되었다. 아르메니아공화국은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터키, 아르헨티나 등 각국에 흩어져 있는 아르메니아 이주민(Armenian diaspora) 작가들의 화해와 정의를 다룬 작품으로 전시장을 꾸몄다. 아르메니아 국가관은 자르디니 공원이 아닌 수 세기 동안 아르메니아 가톨릭 수도원이 있던 베니스의 작은 섬, 산 라자르(San Lazzaro degli Armeni)에 마련됐는데, 베니스 시내에서 1시간이나 걸려 번거롭지만 꼭 들르길 권할 만큼 감동이 크다. 아르메니아 대학살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제국이 아르메니아인 1백50만 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올해 1백 주년을 맞아 다시 주목받고 있다(www.armenity.net). 미국 출신의 여성 작가 에이드리언 파이프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Everything will be taken away)'라는 문구를 써넣은 사진 연작으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흑백사진을 샌드페이퍼로 일부 지운 후 그 위에 'Everything will be taken away'라는 문구를 써넣었으며, 칠판에도 같은 글귀를 끊임없이 써넣어 관객의 주위를 환기시킨다. 거장으로서의 날카로운 감성과 관객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한 작품으로 호평받았다. 우리나라의 거장들도 병행 전시를 위해 베니스를 찾았는데, 팔라초 콘타리니 폴리냐(Palazzo Contarini Polignac)에서 열린 <단색화(Dansaeekhwa)> 전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우환, 박서보, 정상화, 하종현 등 거장들이 베니스를 직접 찾아, 197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되는 단색화를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선보였다. 전시장에는 거장들의 작품 70여 점뿐 아니라 관련 서적, 도록, 시청각 자료까지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전시가 열리는 베니스의 유서 깊은 건축물인 팔라초 콘타리니 폴리냐는 15세기에 건축가 조반니 부오라의 설계로 르네상스 건축양식으로 지었으며, 20세기 초에는 폴리냐 공주의 살롱으로 이용되어 음악가 스트라빈스키, 에델 스피스가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www.venice-dansaeekhwa.com).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다른 거장인 김수자, 하종현, 정창섭, 배병우 작가의 작품이 악셀 페르부르트 베니스(Axel Vervoordt, Venice) 갤러리에서 <프로포르티오(PROPORTIO)> 전시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벨기에의 유명 갤러리인 악셀 페르부르트가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를 맞아 준비한 전시로 한국 미술가뿐 아니라 아니시 카푸어, 로버트 인디애나, 솔 르윗, 빌 비올라, 알레르토 자코메티 등 세계 스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www.axel-vervoordt.com).

우리는 왜 베니스로 가는가?

장외 전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술가 마크 웰링거(Mark Wallinger)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베니스, 이상과 현실 사이(Sleepers in Venice)>와 거장 사이 톰블리(Cy Twombly)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Paradise)>를 놓치지 마시라. 베니스의 랜드마크 리알토 다리 옆 전시장(Calle del Carbon, San Marco 4179)에서 열리는 <베니스, 이상과 현실 사이>는 2001년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관의 대표 작가였던 마크 웰링거가 꿈으로 분장하고 미술관을 배회하는 영상 작품과 토마스 만의 소설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김승민 큐레이터가 기획한 작품. 한국의 젊은 작가 강임윤, 김덕영, 구혜영, 우디 김, 이현준, 장지아, MR36 등이 참여해 비엔날레의 특징과 모순을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전라의 여성이 서서 소변을 보는 장지아 작가의 사진 작품과 적외선 카메라를 쓰고 춤을 추는 무용수의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는 우디 김의 작품이 특히 시선을 끈다. <파라다이스>에서는 2001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미국 미술가 사이 톰블리의 작품을 다시 베니스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9월 13일까지 카 페사르(Ca' Pesaro) 현대미술 갤러리에서 열린다. 83세의 나이로 로마에서 눈을 감은 사이 톰블리의 작품은 그림과 낙서가 어우러진 서정적인 추상화로, 이번 전시에서는 전 생애에 걸친 그의 대표작을 감상할 수 있다(www.gagosian.com). 마지막으로 유명 미술가 단 보(Danh Vo)가 직접 큐레이팅을 맡아 화제를 모은 <슬립 오브 더 텅(Slip of the Tongue)> 전시를 소개한다. 12월 31일까지 폰타 델라 돈가나(Punta della Dogana)와 팔라초 그라시(Palazzo Grassi)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로니 혼, 피에로 만초니, 피카소, 시그마 폴케, 안드레아스 세라노,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등의 스타 작가들의 작품이 총출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고대로부터의 큐레이터의 의미에 주목하며, 베니스의 역사성까지 아우르는 대형 전시를 선보이는 단 보의 역량이 한껏 드러난 재미있는 전시다(www.palazzograssi.it). 이렇듯 르네상스 시대 귀족의 집인 팔라초와 전설을 담고 있는 다리, 운하와 성당 등 도시 전체가 미술 작품인 베니스는 굳이 미술관을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니, 특별한 계획 없이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다. 지금 베니스는 조르조네, 티토레토, 티치아노 등 베네치아 거장들의 작품과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이 공존하며 과거와 현재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승고한 여행지이기도 하다. **김아영**(사진 미술에 중독된다), **사울**, **그라베** **출타** **저택**

SHOWROOM

JEWEL



카르띠에 파리 누벨바그 컬렉션 카르띠에가 파리 누벨바그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18K 핑크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주얼리 컬렉션으로 활력이 넘치는 파리의 일상에서 영감을 받았다. 복잡하게 얽힌 네크라스와 브리올레, 링, 아워링은 화려함을 뽐내며 매혹적인 오라를 발산한다. 7월부터 카르띠에 일부 부티크에서 판매한다. 문의 1566-7277

오메가 새로운 앰배서더 에디 레드메인 오메가가 올해 조지 클루니, 니콜 키드먼, 로리 맥길로이, 그리고 신디 크로퍼드에 이어 에디 레드메인을 인터내셔널 앰배서더로 선정했다. 로리 맥길로이 다음으로 영국의 배우로는 처음 계약을 체결한 에디 레드메인은 훌륭한 연기로 오스카상을 수상했으며, (사망)에 대한 모든 것을 통해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은 배우다. 오메가의 CEO인 스티븐 우르트는 겸손한 에디 레드메인의 합류를 환영하며 기대감을 표했다. 문의 02-511-5797

문진 콘퀘스트 클래식 문페이즈 문진은 콘퀘스트 클래식 컬렉션 라인으로 새로운

로도 하이퍼크롬 오토매틱 스물 세컨드 로도는 7월 한 달간 하이퍼크롬 오토매틱 스물 세컨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로도만의 특허 기술인 플라즈마 공법으로 표현해낸 우아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이 모델은 하이퍼크롬 컬렉션의 베스트셀러다. 6시 방향에 스물 세컨드 다이얼을 배치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견고한 소재로 스크래치에 강하다. 문의 02-2639-1964

몽블랑 헤리티지 크로노메트리 듀얼 타임 몽블랑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컴플리케이션을 장착해 세컨드 존 시간과 사용자의 홈 타임 존 시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헤리티지 크로노메트리 듀얼 타임을 선보인다. 얇은 스틸 케이스는 우아한 무드를 자아내며 바스트 패턴으로 장식된 3개의 실버 화이트 다이얼에서는 모던함이 느껴진다. 문의 02-2118-6053

세븐프라이데이 P1-2 세븐프라이데이는 오직 여름에만 만나볼 수 있는 P1-2를 소개한다. 화이트 컬러의 오픈워크 다이얼과 스트랩의 조화가 스타일리시한 P1-2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해 약 4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생활 방수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미네랄 글라스로 빛 반사를 방지해 가독성을 높였다. 문의 070-4655-1780

타파니 티파니 티 컬렉션과 아틀라스 컬렉션 티파니는 가벼워진 옷차림에 포인트가 되어줄 티파니 티 컬렉션과 아틀라스 컬렉션을 제안한다. 그래파틱한 형상의 모던한 티파니 티 컬렉션은 시크한 매력을 자아내며, 로마숫자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한 아틀라스 컬렉션은 티 컬렉션과 환상의 조화를 자랑하며 스타일링에 포인트가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547-9488

그리프 카리사 컬렉션 그리프는 활짝 핀 카리사 꽃의 모습을 담은 카리사 컬렉션을 선보인다. 다이아몬드와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가 미니멀한 세팅으로 어우러져 보석 각각의 강렬함이 느껴진다. 특히 꽃잎 모티브가 흘러내리듯 이어져 마치 파이버 세이프 보석으로 완성되는 네크라스는 네크라스는 섬세한 조종처럼 아름답고 매혹적이다. 문의 02-2256-6810

빈클리프 아펠 서프 볼링 컬렉션 빈클리프 아펠은 연의 움직임을 아름답게 재해석한 서프 볼링 컬렉션을 선보인다. 바람에 따라 팔리는 연의 곡선을 표현해 유니크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특히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화이트 & 그레이 머더모펄과 다양한 커링의 핑크 & 퍼플 사파이어 세팅이 돋보인다. 문의 02-3440-5660

LIFESTYLE



후슬러 탱크 크레스트 티 타임 세트 후슬러 코리야는 후슬러 탱크 1백7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탱크 크레스트 티 타임 세트를 선보인다. 후슬러의 오랜 전통과 자부심을 의미하는 탱크 크레스트가 전면에 새겨진 제품으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골드와 화이트 골드 컬러로 이루어져 있다. 탱크 크레스트 머그와 다과 접시, 머그 받침 등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우드 플레이트로 구성되었다. 문의 02-3448-0266

포르쉐 카레라립 아시아 2015 포르쉐 코리아는 지난 5월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진행된 '포르쉐 카레라립 아시아 2015' 3, 4라운드 경기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처음으로 최영길 선수가 팀 포르쉐 코리아의 이름으로 출전해 의미를 더했다. 또 경주 기간 동안 GT3 컵 카를 소개해 관중의 호응을 얻었다. 문의 02-788-7321

아모레퍼시픽 퍼펙트 컴포트 바디 클러션 아모레퍼시픽은 여름을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기프팅 아이템인 '샘머 기프팅 3종'을 선보인다. '뉴트럴 립 펜슬 세트'와 '브라이트 립 펜슬 세트'를 루나스는 고풍적이고 대담한 컬러로 구성되었다. 특히 '치코 팔레트 브레이크 잇 온 나스'는 블랙과 브라운 컬러를 담아 소장 가치를 높였다. 문의 02-6905-3747

멜비타 로즈 린스 멜비타에서 유가농 린프로스 로즈 린스를 출시한다. 프랑스 에코서트 유가농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보습 효과가 뛰어난 장미 추출물과 로즈 플로럴 워터, 로즈힙 오일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장맛비의 은은한 풀이 입술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며, 끈적임 없이 오랜 시간 촉촉한 입술로 유지해준다. 문의 02-544-2505

셀화수 순채클렌징오일 셀화수는 자외선 클렌징 오일 '순채클렌징오일'의 대용량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한방 성분을 함유해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어 메이크업 잔여물은 물론 모공 속 노폐물까지 없애준다. 또 피부 각질을 정돈해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로 가꿔준다. 특히 사용감이 산뜻해 여름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80-023-5454

랑세 오랑탕스 와 헤로인 랑세에서 올여름 입페리얼 라인인 '오랑탕스'와 '헤로인'을 출시한다. 오랑탕스는 매혹적인 내달린드 황비 오랑탕스를 표현한 스파이시 오리엔탈 계열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선사한다. 헤로인은 나폴레옹의 영웅적인 삶을 담은 시트러스 프루티 우디 계열의 남성용 향수로, 프로페셔널한 남성에게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향이다. 문의 02-3443-5050

페리 에센스 컬렉션 EDT 라인 페리라는 각기 다른 3가지 싱글 향료를 모티브로 한 에센스 컬렉션 EDT 라인을 선보인다. 특유의 섬세한 디자인과 각각의 향료를 나타내는 컬러의 보틀이 돋보인다. 싱그러움 향기를 선사하는 노를 피고와 신선한 오렌지 향의 브라이트 네롤리, 감각적인 진함을 남기는 퓨어 리벤더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080-800-8809

샤넬 블루 리듬 샤넬은 강렬한 메이크업을 위한 '블루 리듬'을 출시한다. 오묘한 블루 톤의 아이섀도우와 마스크라, 아이라이너로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을 한 후 입술의 볼륨감을 실려주는 립글로스를 사용하면 모던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특히 청량감이 느껴지는 네일로 마무리하면 더욱 역동적인 블루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문의 080-332-2700

랑콤 인드라젠 수분 젤 슬리밍 팩 랑콤은 진정 효과가 뛰어난 '인드라젠 수분 젤 슬리밍 팩'을 출시한다. 프렌치 로즈 추출물을 함유한 젤 텍스처의 슬리밍 팩으로 밤사이 피부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며, 수분을 채워준다. 특히 여름철 햇빛에 달이오른 피부에 즉각적인 쿨링 효과를 제공한다. 문의 080-022-3332

SK-II 스타트 피테라 키트 SK-II에서 'SK-II 스타트 피테라 키트'를 선보인다. 피테라™ 원액을 90% 이상 함유해 피부의 활력을 되찾게 도와 많은 피부로 가꾸주는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 페이스 트리트먼트 클리어 로션, '스텔라워 크림', 페이스 트리트먼트 마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080-023-3333

BEAUTY



로메오 산타마리아 로메오 산타마리아는 여름을 맞이해 콤팩트한 스몰 사이즈의 악어 토트백을 제안한다. 세련된 스퀘어 디자인에 광택이 도는 청량한 테라이즈 블루 컬러 악어가죽과 안쪽에 사용한 섬세한 오렌지 컬러 송이가지죽의 대비가 유니크하다. 또 이탈리아 장인이 수작업으로 완성해 견고함을 자랑한다. 문의 02-3213-2362

로베르 플레제리 플리암 샌들 로베르 플레제리에서 서머 슈즈 '플리암' 샌들을 선보인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황광 유리는 화이트와 실버 톤을 사용해 특유의 볼드한 굽에 여성미를 담았다. 굽과 디테일의 대비가 돋보이며, 풀 스타일의 샌들로 신고 벗기 편하다. 문의 02-310-5286

셀린느 나추럴 카프스키 백 컬렉션 셀린느가 2015 가을 시즌을 맞아 천연 송이가지죽을 제작한 백 컬렉션을 출시한다. 아이코닉한 백인 라가자와 벨트 백뿐만 아니라 새로운 색을 백과 탭 백을 선보이는데, 모두 클

로메오 산타마리아 악어 토트백 로메오 산타마리아는 여름을 맞이해 콤팩트한 스몰 사이즈의 악어 토트백을 제안한다. 세련된 스퀘어 디자인에 광택이 도는 청량한 테라이즈 블루 컬러 악어가죽과 안쪽에 사용한 섬세한 오렌지 컬러 송이가지죽의 대비가 유니크하다. 또 이탈리아 장인이 수작업으로 완성해 견고함을 자랑한다. 문의 02-3213-2362

로베르 플레제리 플리암 샌들 로베르 플레제리에서 서머 슈즈 '플리암' 샌들을 선보인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황광 유리는 화이트와 실버 톤을 사용해 특유의 볼드한 굽에 여성미를 담았다. 굽과 디테일의 대비가 돋보이며, 풀 스타일의 샌들로 신고 벗기 편하다. 문의 02-310-5286

셀린느 나추럴 카프스키 백 컬렉션 셀린느가 2015 가을 시즌을 맞아 천연 송이가지죽을 제작한 백 컬렉션을 출시한다. 아이코닉한 백인 라가자와 벨트 백뿐만 아니라 새로운 색을 백과 탭 백을 선보이는데, 모두 클

FASHION



SK-II SK-II 스타트 피테라 키트를 선보인다. 피테라™ 원액을 90% 이상 함유해 피부의 활력을 되찾게 도와 많은 피부로 가꾸주는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 페이스 트리트먼트 클리어 로션, '스텔라워 크림', 페이스 트리트먼트 마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080-023-3333

샤넬 블루 리듬 샤넬은 강렬한 메이크업을 위한 '블루 리듬'을 출시한다. 오묘한 블루 톤의 아이섀도우와 마스크라, 아이라이너로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을 한 후 입술의 볼륨감을 실려주는 립글로스를 사용하면 모던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특히 청량감이 느껴지는 네일로 마무리하면 더욱 역동적인 블루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문의 080-332-2700

랑콤 인드라젠 수분 젤 슬리밍 팩 랑콤은 진정 효과가 뛰어난 '인드라젠 수분 젤 슬리밍 팩'을 출시한다. 프렌치 로즈 추출물을 함유한 젤 텍스처의 슬리밍 팩으로 밤사이 피부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며, 수분을 채워준다. 특히 여름철 햇빛에 달이오른 피부에 즉각적인 쿨링 효과를 제공한다. 문의 080-022-3332

SK-II 스타트 피테라 키트 SK-II에서 'SK-II 스타트 피테라 키트'를 선보인다. 피테라™ 원액을 90% 이상 함유해 피부의 활력을 되찾게 도와 많은 피부로 가꾸주는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 페이스 트리트먼트 클리어 로션, '스텔라워 크림', 페이스 트리트먼트 마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080-023-3333

로메오 산타마리아 악어 토트백 로메오 산타마리아는 여름을 맞이해 콤팩트한 스몰 사이즈의 악어 토트백을 제안한다. 세련된 스퀘어 디자인에 광택이 도는 청량한 테라이즈 블루 컬러 악어가죽과 안쪽에 사용한 섬세한 오렌지 컬러 송이가지죽의 대비가 유니크하다. 또 이탈리아 장인이 수작업으로 완성해 견고함을 자랑한다. 문의 02-3213-2362

로베르 플레제리 플리암 샌들 로베르 플레제리에서 서머 슈즈 '플리암' 샌들을 선보인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황광 유리는 화이트와 실버 톤을 사용해 특유의 볼드한 굽에 여성미를 담았다. 굽과 디테일의 대비가 돋보이며, 풀 스타일의 샌들로 신고 벗기 편하다. 문의 02-310-5286

셀린느 나추럴 카프스키 백 컬렉션 셀린느가 2015 가을 시즌을 맞아 천연 송이가지죽을 제작한 백 컬렉션을 출시한다. 아이코닉한 백인 라가자와 벨트 백뿐만 아니라 새로운 색을 백과 탭 백을 선보이는데, 모두 클